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동기, 도덕적 이탈,  
코칭유형의 다중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지도교수 양 명 환

제주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김 선 욱

2020年 2月

운동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동기, 도덕적 이탈,  
코칭유형의 다중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指導教授 梁明煥

金善旭

이 論文을 體育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9年 11月

金善旭의 體育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성 창 훈



委 員 김 덕 진



委 員 김 미 예



委 員 서 태 범



委 員 양 명 환



濟州大學校 大學院

2020年 2月



# 제목 차례

## ABSTRACT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	1
2. 용어의 정의 .....	5
<b>II. 이론적 배경</b> .....	<b>7</b>
1. 성취목표성향 .....	7
2. 자기조절동기 .....	9
3. 도덕적 이탈 .....	12
4. 코칭 유형 .....	16
5. 사회적 행동 .....	19
6. 선행연구 .....	21
<b>III. 연구 1</b> .....	<b>27</b>
1. 문제 제기 .....	27
2. 연구 방법 .....	31
3. 연구 결과 .....	36
4. 논의 .....	44
<b>IV. 연구 2</b> .....	<b>48</b>
1. 문제 제기 .....	48
2. 연구 방법 .....	52
3. 연구 결과 .....	56
4. 논의 .....	70

VII. 종합논의 .....	73
VIII. 결론 .....	76
참고문헌 .....	77
부록 1: 연구 1의 질문지 .....	1
부록 2: 연구 2의 질문지 .....	6

## <표 차례>

표 1. 전체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분포 특성 .....	36
표 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	37
표 3. 과제목표성향과 자율적 동기, 도덕적 이탈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직접효과 검증 .....	39
표 4.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다중매개변인의 총 효과 및 간접효과 .....	40
표 5. 자아목표성향과 통제적 동기, 도덕적 이탈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직접효과 검증 .....	41
표 6.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서 다중매개변인의 총 효과 및 간접효과 .....	42
표 7. 전체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분포 특성 .....	56
표 8.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	57
표 9. 과제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검증 .....	59
표 10. 자아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검증 .....	60
표 11. 도덕적 이탈을 경유한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매개효과에 대한 자율성지지 코칭의 조절효과 검증 .....	61
표 12. 도덕적 이탈을 경유한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제적 코칭의 조절효과 검증 .....	63
표 13. 도덕적 이탈을 경유한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매개효과에 대한 자율성지지 코칭의 조절효과 검증 .....	66
표 14. 도덕적 이탈을 경유한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제적 코칭의 조절효과 검증 .....	68

## <그림 차례>

그림 1. 인지된 인성수준, 성취목표성향, 도덕적 이탈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Boardley & Kavussanu, 2010) .....	22
그림 2. 통제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김선옥, 오영택, 양명환, 2018) .....	24
그림 3. 자율성 코칭, 자기조절동기, 도덕적 이탈,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Hodge & Lonsdale, 2010) .....	25
그림 4. 코칭유형, 도덕적 이탈,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김선옥, 오영택, 부남철, 양명환, 2016) .....	26
그림 5. 과제목표성향이 자율적동기와 도덕적 이탈,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29
그림 6. 자아목표성향이 통제적동기와 도덕적 이탈,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29
그림 7.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율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의 다중매개효과 모형 .....	38
그림 8.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통제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의 다중매개효과 모형 .....	40
그림 9. 연구 모형 1 .....	50
그림 10. 연구 모형 2 .....	50
그림 11. 연구 모형 3 .....	51
그림 12. 연구 모형 4 .....	51
그림 13.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모형 .....	58
그림 14.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모형 .....	59
그림 15. 조절된 매개모형의 통계모형 .....	62
그림 16. 통제적 코칭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의 단순기울기 검증 .....	64
그림 17. 조절된 매개모형의 통계모형 .....	65
그림 18. 자율성지지 코칭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의 단순기울기 검증 .....	66
그림 19. 조절된 매개모형의 통계모형 .....	67
그림 20. 조절된 매개모형의 통계모형 .....	69

## ABSTRACT

#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Moral Disengagement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Coaching Sty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ocial Behaviors Among Athletes

Seon-Uk, Ki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Directed by Prof, Myung-Hwan, Ya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and moral disengag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hlete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ocial behavior (pro-social behavior and antisocial behavior). Furthermore, we tried to verify whether this mediating effect can be conditionally moderated according to the coaching style, which is a social environment variable.

Participants in study 1 were 255 high school, university and professional Taekwondo athletes who 2018 participated in the Peace Taekwondo Championships and the national finalists. They responded to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determined motivation, moral disengagement, prosocial behavior, and antisocial behavior measures. Multiple mediation effect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program. As a result, autonomous motiv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indirect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ask goal orientation and prosocial behavior, but there was no indirect effect of moral disengagement.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 goal orientation and antisocial behavior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indirect effect of controlled motivation and moral disengagement. Specifically, task goal orientation not only directly effects prosocial behavior, but also indirect effects through autonomous motivation, but ego goal orientation had no direct effect on antisocial behavior. However, it has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antisocial behavior through controlled motivation and moral disengagement.

Study 2 was conducted on 268 high school, college and professional athletes who 2018 participated in the presidential Taekwondo competition. They complete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moral disengagement, coaching style, prosocial behavior, and antisocial behavior measure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coaching type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program. As a result, mediating effects of task goal orientation, moral disengagement, and prosocial behavior were found to be moderated through controlled coaching, although the mediating effect of autonomous support coaching was not significant.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goal orientation, moral disengagement, and antisocial behavior were moderated by autonomous support coaching, but the moderating effect of control coaching was not significant.

In conclusion, this study contributed to demonstrating moral behavior predictors by deriving meaningful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determined motivation, moral disengagement, prosocial behavior, and antisocial behavior. Furthermore, it is evaluated that the literature of the moral behavior was extended by analyzing meaningful results that moral disengagement and moral behavior can be moderated by the social environment variables such as coaching style.

Key word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utonomous motivation, controlled motivation, moral disengagement, coaching style, prosocial behavior, antisocial behavio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는 제도화된 규정과 규칙의 틀 안에서 경쟁적 요소가 내포되어 정정당당하게 승패를 겨루는 것이 가치이며 본질이다. 이처럼 스포츠는 팀 동료와 협동하고, 협력하며 용기를 발휘하도록 학습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되고 있다(김선욱, 양명환, 2013; Kleiber & Roberts, 1981). 그러나 스포츠에서는 인간의 본성인 욕구와 만족에 따라 행동들이 차이를 보이게 된다. 스포츠는 상대방과의 경쟁을 통해 승자와 패자로 구분된다. 이러한 스포츠 특성상 선수들은 승리의 목적을 두는 승리지상주의를 보이게 되는데, 승리는 곧 인간의 욕구와 만족을 충족하기 위한 목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승리가 목표가 되는 스포츠 사회에서 승리를 위한 비도덕적 행동인 승부조작이나, 불법약물복용, 불법스포츠도박, 심판의 편파판정, 폭력 등 반사회적 행동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김선욱, 양명환, 2018).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은 Bandura(1991)의 사회인지이론을 바탕으로 스포츠 도덕적 행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도덕적 행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Kavussanu, 2006; Kavussanu & Boardley, 2009; Sage, Kavussanu & Duda, 2006)들은 스포츠상황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행동을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과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친사회적 행동이란 자발적으로 타인을 돕거나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Eisenberg, Fabes & Spinrad, 2006). 스포츠에서의 예로는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심판판정에 승복하며, 스포츠퍼슨십(sportspersonship)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사회적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Kavussanu, Seal & Phillips, 2006; Sage et al., 2006). 흔히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반사회적 행동은 경기규칙을 위반하고, 상대선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수행향상을 위한 약물복용(doping)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을 승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되어버린 승리지상주의로 인하여 비도덕적인 문제들이 유발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Orlick, 1978; 김선욱, 2015 재인용), 경쟁이 친사회적 행동을 줄이고(Kleiber & Roberts, 1981), 반사회적 행동을 증가(Kohn, 1986)시킨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목표는 다양하며,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도록 하는 독특한 신념과 귀인, 그리고 감정의 통합된 양상으로 정의되는 성취목표성향(goal orientation)이 있다(Ames, 1992). 성취목표성향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어떠한 목표지향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성취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행동과 수행에 있어서도 다른 반응을 보이며, 결과에 대한 지각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Elliot & Dweck, 1988). 성취목표성향은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과제(task) 목표성향과 자아(ego)목표성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스포츠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으로 성취목표성향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Nicholls, 1989). 과제목표성향은 자신의 기준에서 성공여부와 능력을 평가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목표한 과제를 숙달하거나, 새로운 과제를 학습, 그리고 기능이 향상되었을 때 성공하였다고 느끼는 성향이다. 반면, 자아목표성향은 타인을 기준으로 유능성과 성공여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아목표성향을 가진 개인은 타인보다 유능한 수행을 하였을 때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하게 된다(Nicholls, 1989). 따라서 과제목표성향이 높은 선수는 개인의 과제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경기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반면에 자아목표성향이 높은 선수는 목표가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규칙을 위반하고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Duda, Olson & Templin, 1991).

한편,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자기결정성 연속체를 따라 자기결정성으로부터 비자기결정성, 그리고 행동할 의지가 결여된 무동기까지 상이한 형태의 동기가 연속선상에서 조절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Deci & Ryan, 2002). 자기결정이론에 의거하여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자율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 반대로 강압적이거나 환경적인 이유로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통제적 동기(controlled motivation)라고 구분되어 진다(Ntoumanis & Standage, 2009; Standage, Sebire & Loney, 2008). 선행연구들(Hodge & Lonsdale, 2011; Ntoumanis & Standage, 2009; Shields & Bredemeier, 2007)에 의하면 자율적 동기를 가진 선수들은 운동을 즐기고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하려는 노력을 하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통제적 동기를 가진 선수들은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이나 외적인 보상, 그리고 개인의 명예 등의 목적을 위해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자

율적 동기는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구인으로 작용되고, 통제적 동기는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구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김선옥, 오영택, 양명환, 2018).

또한 선수들의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구인으로 도덕적 이탈이 보고되고 있다(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 김선옥 등, 2016 재인용). 국외의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김선옥, 양명환, 2013; 김선옥, 양명환, 2015)은 도덕적 이탈이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예측변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김선옥 등, 2016). Bandura(1991)에 의하면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은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 개인 스스로가 도덕적인 면책을 지시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발생되며, 다양한 인지적 왜곡을 통해 자기면책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Bandura 등(1996)은 개인이 비도덕적인 행동에 관여할 때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8가지 도덕적 이탈의 심리·사회적 메커니즘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하는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도덕적 이탈의 구조는 1요인으로 보는 연구(김선옥 등, 2018; Caprara & Capanna, 2005; McAlister, 2001)와 4요인으로 보는 연구(김선옥, 양명환, 2017; McAlister, Bandura & Owen, 2006; Osofsky, Banura & Zimbardo, 2005), 5요인으로 보는 연구(김선옥 등, 2016), 그리고 6요인으로 보는 연구(Boardley & Kavussanu, 2007) 등 연구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도덕적 이탈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수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 동안 어떠한 변인들이 선수들을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의 연구(김선옥, 양명환, 2013, 2015, 2018; 김선옥 등, 2016; 김선옥 등, 2018)에서도 도덕적 이탈과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여러 변인들(성취목표성향, 동기분위기, 자기조절동기, 경쟁지향성, 코칭유형 등)이 도덕적 이탈과 반사회적 행동,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스포츠에서 선수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는 주요타자인 코치에 의해 선수들의 행동이 나 팀의 분위기, 즉 코치가 조성하는 맥락적인 환경(Bartholomew, Ntoumanis & Thøgersen-Ntoumani, 2010; Gagne, Ryan & Bargmann, 2003)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선옥, 오영택, 부남철, 양명환, 2016). 코치의 코칭방식은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거하여 두 개의 방식, 즉 자율성 지지 코칭행동(autonomy-supportive coaching behaviors)과 (autonomous coaching)과 통제적 코칭행동(controlling coaching behaviors)으로 구분되고 있다(Deci & Ryan, 2008; Ryan & Deci, 2002, 양명환, 2015; 김선옥 등, 2016). 스포츠에서의 자율성지지 코칭행동이란 선수개인의 의지적인 행동인 선택이나 노력

등을 인정해주고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Reeve, 2002; 김기형, 박중길, 2009 재인용). 반면 통제적 코칭은 선수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방식들을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양명환, 2015). 선행연구에 의하면 코치가 선수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자율성지지를 받는다고 인식했을 때 친사회적 행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Rutten, Dekovic, Stams, Schulengel, Hoeksma & Biesta, 2008), 코치의 지도방식이 강압적이고 승리만을 강조하는 통제적인 코칭을 받는다고 선수들이 인식했을 때, 선수들은 심리적 압박감과 승리에 대한 경쟁심이 유발되어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Blanchard, Amiot, Perreault, Vallerand & Provencher, 2009). 이처럼 코치의 코칭방식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는데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보면 국내선수들이 행하는 친사회적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성취목표성향(김선욱, 양명환, 2013)과 자기조절동기(김선욱 등, 2018), 도덕적 이탈(김선욱, 양명환, 2013, 2015; 김선욱 등 2016; 김선욱 등 2018), 그리고 코칭 유형(김선욱, 양명환, 2015; 김선욱 등, 2016)의 구인을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연구 대부분이 매개분석 방법으로 이들 간의 관계성을 검증하였고, 사회적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과 그들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연구 1과 연구 2를 계획하였다.

연구 1에서는 성취목표성향(과제목표성향 · 자아목표성향)이 자기조절동기(자율적 동기 · 통제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을 매개로하여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볼 것이다. 연구 2에서는 연구1의 모형에서 성취목표성향과 친사회적·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하는 효과가 코칭유형(자율성지지 코칭 · 통제적 코칭)에 따라서 조건부로 조절되는지 여부를 구명하고자 한다.

##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성취목표성향

성취목표성향(achievement goal-orientation)이란 성취상황에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목적에 맞는 행동방식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신념과 귀인, 그리고 정서를 통합한 형태로 정의된다(Ames, 1992). 본 연구에서는 성취목표성향을 Nicholls(1989)가 제안한 과제목표성향(task goal orientation)의 관점과 자아목표성향(ego goal orientation)의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과제목표성향은 준거의 관점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으로, 자신의 기술이 향상되었거나, 연습과 노력을 많이 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등의 본인의 목표기준을 달성하여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목표성향은 준거의 관점이 타인이 되는 것으로, 상대방보다 수행능력이나 상위 입상 여부를 통해 성공의 성취감을 느끼는 등의 상대방으로부터 우월감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 2) 자기조절동기

자기조절동기(self-regulated motivation)는 일반적으로 행동을 유발시키고 유지 및 지속시키려고 하는 내적인 활력을 의미한다. 자기조절동기는 자율적 동기 복합체와 통제적 동기 복합체로 분류되기도 한다(Deci & Ryan, 2000). 본 연구에서는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로 구분하여 자기조절동기로 정의하였다. 자율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는 자기목적적인 내재적 동기와 자기결정성이 높은 외재적 동기인 확인적 조절동기와 통합적 조절동기를 의미한다. 통제적 동기(controlled motivation)은 외재적 동기와 무동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거나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시나 외부적인 통제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말한다.

### 3) 도덕적 이탈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이란 관습에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8개의 심리·사회적인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도덕적 이탈은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해 자신으로부터 직접 도덕적인 면책을 지시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초래

하게 되며, 이때 받아들이는 자기면책은 다양한 인지적 왜곡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Bandura(1991)가 제시한 도덕적 이탈의 핵심구조인 4차원의 구조(인지 재구조화, 책임축소화, 부정적 결과왜곡, 비난귀인/비인간화)를 1차원으로 구분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 4) 코칭 유형

스포츠 현장에서 코칭이란 코치가 행해야 할 의무로써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선수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코치가 지녀야 할 지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박정근, 2001). 사회적 맥락에서 코칭 유형은 자율성지지 코칭유형과 통제적 코칭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성지지 코칭은 코치와 선수의 상호관계에서 코치가 선수에게 통제하거나 요구를 최소화하는 등, 선수 개인의 감정과 의사를 존중하고 선수개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Black & Deci, 2000). 통제적 코칭은 코치 자신이 계획하는 구체적 방식 등을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선수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중길, 김기형, 2013; 양명환, 2015).

#### 5) 사회적 행동

사회인지이론(Bandura, 1991)에서는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행동을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과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으로 구분하였다(Kavussanu, 2006; Sage, Kavussanu & Duda, 2006).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이란 개인이 행한 행동 뒤에 기대되는 외적인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타인 또는 다른 집단을 자발적으로 돕는 행동을 의미하며(Eisenberg et al., 2006), 스포츠상황에서의 예로는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심판판정에 승복하는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은 타인을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이기적인 행동을 의미한다(Miller, Lynam & Leukefeld, 2003). 스포츠상황에서의 예로는 경기규칙을 위반하고, 불법약물복용(doping),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동 등을 의미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성취목표성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양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나 계획 또한 다양하게 보여 진다. 개념적으로 목표란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최고의 성취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목표달성을 해야 한다(김순식, 1996; 김형일, 2013).

성취목표성향이론은 목표(goal)와 관련된 동기이론에서 나타난 개념으로 사회인지이론의 체계 내에서 성취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성취목표성향이론은 교육학분야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스포츠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스포츠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목표성향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성취목표에 따라 노력여부나 동기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목표의 설정은 개인이 성취하고자 목표에 대해 노력하여 특정한 결과를 의미하는 반면에, 목표성향은 목표의 방향 혹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의미한다(Heyman & Dweck, 1992). 따라서 성취목표성향(achievement goal-orientation)이란 성취상황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방식대로 행동의 목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신념과 귀인, 그리고 정서를 통합한 형태로 정의된다(Ames, 1992). 성취목표성향은 성취목표와 지각된 능력, 그리고 행동이라는 세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개인의 동기 수준이 결정되게 되는데(Duda, 1993), 학습자가 어떠한 목표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성취에 대한 개념과 행동, 그리고 접근 및 수행에 있어서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결과에 대한 인식도 다르게 나타난다(Elliot & Dweck, 1988). 즉 성취목표성향은 개인의 성취를 추구하고자 하면서 경험하고 해석하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며(Elliot, 1999), 학습자의 성취행동과 인지,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학습자의 학습행동에 따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Ames, 1992). 또한 Ames(1984)는 성취동기영역의 사회인지적 접근에 기초를 두면서 개인의 행동과 감정, 그리고 정서의 차이를 이해하고, 특정상황에서 개인이 지향하는 성향의 다양성과 개인 간의 차이가 성공에 대한 평가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성취목표성향은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과제(task)목표성향과 자아(ego)목표성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Nicholls(1989)는 스포츠 상황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성취목표성



향을 과제목표성향의 관점과 자아목표성향의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과제목표성향(task goal-orientation)은 준거의 관점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으로, 자신의 기술이 향상되었거나, 연습과 노력을 많이 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등의 본인의 목표기준을 달성하여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즉 과제목표성향은 개인의 과제를 성취하거나 자신의 발전에 의해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과제목표성향은 타인과의 대결이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아목표성향(ego goal orientation)은 준거의 관점이 타인이 되는 것으로, 상대방보다 수행능력이나 상위 입상 여부를 통해 성공의 성취감을 느끼는 등 상대방으로부터 우월감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즉, 자아목표성향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성취목표성향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선수 개인의 목표성향이 과제 지향이거나 자아지향일 경우에 따라 행동 변화와 패턴을 분석하는데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스포츠 상황에서 과제목표성향이나 자아목표성향을 보이는 선수들의 차이는 연령과 성별, 그리고 문화와 같은 개인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스포츠에서의 과제목표성향은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숙련도와 발전의 범주에서 정의한다. 따라서 과제목표는 일반적으로 과제 자체의 숙달이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초점을 두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절한 자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자아목표성향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능력이 상대방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지각하기 위해서 승리해야 하고, 노력수준은 상대방보다 낮아도 자신의 타고난 능력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즉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이 상대방에게 승리했는지 혹은 패배했는지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객관적 범주에서 정의한다(Maehr & Nicholls, 1980).

이러한 두 가지 성취목표성향은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이지만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제목표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자아목표성향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는 과제목표성향과 자아목표성향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Ames, 1992).

## 2. 자기조절동기

### 1) 자기결정이론의 개념

동기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정의 할 수 있다(Ryan & Deci, 2000).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은 Deci와 Ryan(1980)에 의해 개발된 이론으로 여러 방면에서 빠르게 발전되었다. 자기결정성이란 인간의 동기부여를 설명하기 위한 넓은 의미의 이론으로 인간의 행동은 자율적이고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의욕 등의 자기 결정의 정도라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을 말한다(오영택, 2013). 자기결정성 이론은 5가지 하위이론으로 인지평가이론과 유기체통합이론, 인과성향이론, 기본욕구이론, 그리고 목표설정이론으로 구성되었으며 5가지 이론에 대해 통합을 시도하면서 발전되어 왔다(Deci & Ryan, 1985, 2002; 김덕진, 2010 재인용).

먼저 인지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 CET)은 내재적 동기에 대해 외적으로부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구체화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인지평가이론의 연구는 내재적 동기의 증가와 감소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들에 대해 사회·맥락적 변인들의 효과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Ryan과 Deci(2007)는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율성과 유능성 두 요인이 필수 조건이라고 제안했다.

유기체통합이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 OIT)은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반된 유형의 외재적 동기와 행동조절 내면화와의 통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맥락적 요인들을 다루게 된다.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는 개인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할 때 언제나 관련이 되는 구인이다. 따라서 외재적 동기는 도구적 가치보다는 활동 자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활동하는 내재적 동기와는 상반되는 동기이다. 외재적 동기로 인한 행동들이 항상 통제적인 유형의 동기로 간주하는 몇몇 이론과는 달리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외재적 동기가 자율성 정도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제안했다(Ryan & Deci, 2000).

인과성향이론(causality orientations theory: COT)은 내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한 상황에서 인간의 동기와 행동, 그리고 경험은 유기체와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성격특성의 개인차를 다루고 있다(Deci & Ryan, 1985). 즉 인과성향이론은 사회에서 개인의 동기성향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용되는 개개인들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된 이론이다.

기본욕구이론(basic needs theory: BNT)은 개인이 경험적으로 발전된 현상의 다양성을 통합하기 위해 그 자체가 본질적이라는 세 가지의 기본적 욕구를 가정한다. 기본욕구 이론의 세 가지의 기본적 욕구들은 학습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선천적으로 발달된 기본적 욕구로 정의하고 있다(Deci & Ryan, 2002). 기본욕구이론에 대한 연구는 심리적 건강이나 행복, 그리고 만족 등과 같이 긍정적인 심리적 결과들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Kowal & Fortier, 2000; Reis, Sheldon, Gable, Roscoe & Ryan, 2000).

## 2)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자들이 주장하는 자기결정성 동기의 분류체제는 자기결정성으로부터 비자기결정성, 그리고 무동기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동기가 연속선상에서 조절 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Deci & Ryan, 2002; 오영택, 김선옥, 인소정, 양명환, 2016 재인용). 또한 박병기, 이종욱, 홍승표(2005)는 자기결정성에 따른 학습동기의 분류체제에서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의 2요인 모형이 자기결정성이론에서 제안된 6요인 모형보다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Ryan과 Deci(2000)는 자기결정성동기 유형 중 확인적 조절과 통합적 조절, 그리고 내적 조절을 종합하여 '자율적 동기 복합체(autonomous motivation composite)', 외적 조절과 내압적 조절을 종합하여 '통제적 동기 복합체(controlled motivation composite)'라고 분류하기도 하였다(김아영, 2002; Deci & Ryan, 2000).

이처럼 자기조절 동기는 자율적 동기(내재적 조절, 확인적 조절)와 통제적 동기(내압적 조절, 외적조절, 무동기)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자율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는 자기목적적인 내재적 동기와 자기결정성이 높은 외재적 동기인 확인적 조절동기와 통합적 조절동기를 의미한다. 자율적 동기는 자기결정성이 높기 때문에 행동을 자율적으로 시작하고 유지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동적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통제적 동기(controlled motivation)는 외재적 동기와 무동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내면화 첫 단계인 내압적 조절동기와 외적조절동기를 의미한다. 통제적 동기는 자기결정성이 낮은 동기들로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거나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시나 외부적인 통제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말한다.

자율적 동기를 가진 선수들의 즐거움은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다른 동료들과의 친화적인 방법으로 수행을 한다고 보고되었다(Donahue, Robinson,

Stanier & Pandis, 2006). 즉, 자율적 동기를 가진 선수들은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적합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역량을 발휘하며, 동료 선수와의 관계를 친화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통제적 동기를 가진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자아지향과 명성 및 욕구 만족을 대신하는 내재적 보상을 얻으려한다고 보고되었다(Deci & Ryan, 2002). 통제적 동기를 가진 선수들은 게임의 과정보다 결과적으로 승리에 더 집착하고 자아지향과 명성, 그리고 외적인 보상의 목표를 달성하고 우발적인 자긍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기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Donahue, Miquelon, Valois, Goulet, Buist & Vallerand, 2006).

선행 연구들은 동기가 중요한 결과를 예측한다고 보고하고 있다(Vallerand, 1997). 상이한 형태의 조절은 높은 자기 결정성에서 낮은 자기 결정성까지의 연속체 위에 존재한다고 가설화 되어 있고 자기결정성이 고양된 심리적 기능(Deci, 1980; Deci & Ryan, 1985)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결정 이론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결정성이 높은 조절인 자율적 동기는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는 반면에 자기 결정성이 가장 낮은 조절인 통제적 동기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yan과 Deci(2000)는 자율적 동기는 활동 그 자체 본질적인 관심이나 즐거움에 기인한 행동이나 활동에 부가된 가치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을 나타내고,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감각과 일치한다고 보고했다(Ryan & Deci, 2000). 즉, 자율적 동기가 높아지려면 능력 및 관련성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인 심리적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제적 동기의 선수들은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이러한 예측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Vallerand, 1997). 구체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들(예, 교육, 직무, 건강 및 체육)에서는 자기 결정성이 높은 형태의 동기, 즉 자율적 동기가 학습개선과 흥미증가, 노력증가, 수행개선, 몰입, 자존심, 적응력 개선, 만족도 증가 및 건강증진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반면에 자기 결정성이 낮은 형태인 통제적 동기는 이러한 결과들과 부정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Grolnick & Ryan, 1987; Fortier, Vallerand & Guay, 1995; Kasser & Ryan, 1996; Pelletier, Fortier, Tuson, Briere & Blais, 1995; O'Conner & Vallerand, 1990; Vallerand, Pelletier, Blais, Brière, Senècal & Vallières, 1992, 1993; Williams, Grow, Freedman, Ryan & Deci, 1996). 또한 Deci와 동료들(Deci, Koestner & Ryan, 1999)은 통제적으로 조작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활동에 강압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되는 사람들이 내재적으로 동기화 된 사람들보다 자발적인 선택 기간 동안에 지속여부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스포츠 현장에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 통제적 동기를 가진 선수들이 불법약물의 복용과 도덕적 이탈 등의 반사회적 행동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Barkoukis, Lazuras, Tsorbatzoudis & Rodafinos 2011; Donahue et al., 2006; Hodge & Lonsdale, 2011).

### 3. 도덕적 이탈

#### 1)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의 정의

Bandura(1991)가 제안한 사회인지이론에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판단에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한 동기보다 행동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개인의 목적을 위한 의도로 행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행동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하였다(Bandura, 1991).

사회인지이론에서는 도덕적 현상이 인지적 상호작용주의 관점(cognitive interactionist perspective)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인지적 상호작용주의 관점이란 도덕적 현상은 특정한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도덕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Bandura, 1991). 즉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타자(코치, 부모, 동료 등)로부터의 모델링(modeling)과 사회적 규범 등으로부터 도덕적 기준이 발달되고, 평가가 되어 설정된다. 이렇게 발달된 도덕적 기준은 평가된 자기규제를 통해 행동이 규제되는 것을 의미한다(윤혜성, 임태희, 장창용, 2017).

Bandura와 동료들(Bandura et al., 1996)은 도덕적 행동을 개인의 내적인 자기규제기제(self-regulatory mechanism)에 의해 통제되어 지는데, 다시 말해 개인이 부과한 정서적 반응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자기규제를 통해 자기존중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자기비난과 처벌 등과 같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행동은 억제하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 자기반응을 결정하는 것이 도덕적 인지라고 할 수 있다(김선옥, 2015 재인용).

Bandura(1991)는 자기규제기제의 기본적 과정인 도덕적 인지가 왜곡이 되면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이 초래되어 자기규제기제의 행동에서 통제기능이 방해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Paciello, Fida, Tramontano, Lupinetti & Caprara, 2008). 도덕적 이탈은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해 자신으로부터 직접 도덕적인 면책을 지시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초래하게 되

며, 이때 받아들이는 자기면책은 다양한 인지적 왜곡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행동’과 ‘행동의 결과’, 그리고 ‘행동의 피해자’와 ‘개인적 책임감’에 대해 인지적인 재해석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비도덕적 행동이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고 자기 합리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경연, 하영희, 2003). 또한 Bandura(1991)는 도덕적 이탈이 개인이 직접 수행한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면책하는 동시에 발생되며, 이러한 면책은 8가지 인지적인 왜곡을 통해 진행된다고 하였다(Paciello et al., 2008).

## 2) 도덕적 이탈의 구분

Bandura등(Bandura et al., 1996)은 도덕적 이탈을 관습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8개의 심리·사회적인 메커니즘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인지적으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도덕적인 행동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하며, 도덕적인 관습에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을 최소화시켜주게 된다. 그리고 이탈행동으로 인한 불법행동에 대해 거짓말을 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인성이나 행동을 비난하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Bandura, 1991). 8가지 심리·사회적인 메커니즘은 도덕적 정당화(moral justification)와 완곡한 라벨링(euphemistic labeling), 유리한 비교(advantageous comparison), 책임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 책임전가(displacement of responsibility), 결과왜곡(disregard or distortion of consequences), 비인간화(dehumanization), 그리고 비난귀인(attribution of blame)으로 구분하는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김선정, 2014; 노승현, 2011; Bandura, et al., 1996; 김선옥, 2015 재인용).

### (1) 도덕적 정당화(moral justification)

도덕적 정당화는 자신이 행한 행동이 사회에서 정당화되어 수용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정당화를 통해 스스로를 도덕적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피하지 않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 (2) 완곡한 라벨링(euphemistic labeling)

완곡한 라벨링은 자신의 행한 행동에 대해 보다 완곡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행동이 어떻게 명명되는지에 따라 행동 자체가 다르게 보여 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가 된다. 따라서 부적절한 면을 포괄하고 있는 언어 대신에 완곡한 라벨링을 통해 도덕적인 행동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비도덕적인 행동이 도덕적인 행동인 것처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3) 유리한 비교(advantageous comparison)

유리한 비교는 자신이 행한 특정한 행동이 다른 행동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즉 자신의 행한 비도덕적인 행동을 강도가 더 높은 비도덕적인 행동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비도덕적인 행동 보다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인 행동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인지적 구조이다.

(4) 책임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

책임분산은 팀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 동료들과 같이 임무가 분류되면서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 즉, 팀 임무가 개인들에게 주어졌을 때, 세분화 된 임무들 그 자체로는 비도덕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되면서 결국 임무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아닌 팀 전체에 귀인하면서 개인의 잘못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5) 책임전가(displacement of responsibility)

책임전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개인의 책임으로 말하기 보다는, 타인이나 사회적 억압에 의한 지시로 책임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스스로가 비도덕적인 결과를 인정할 때 도덕적 통제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본다면, 책임전가를 보이는 개인의 성향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비난적인 반응을 하지 않도록 돕게 된다.

(6) 결과왜곡(disregard or distortion of consequences)

결과왜곡은 비도덕적인 행동에 관여하면서 그 행동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려고 하는 방법이다. 즉, 개인의 행동에 대한 비도덕적인 결과는 축소되고 회피하여, 자기 비난을 줄여 그 결과에 대해 왜곡하는 것을 의미한다.

(7) 비인간화(dehumanization)

비인간화는 자기 비난의 강도를 상대방의 인간성을 인지적으로 박탈하거나 그들을 동물적인 본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번이라도 비인간화된 사람은 더 이상 느낌이나 소망, 염려 등을 가진 개체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못한 그 이하의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8) 비난귀인(attribution of blame)

비난귀인은 상대방이나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면제(self-exonerating)를 유리하게 하는데,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를 죄가 없는 희생자로 여기게 된다. 자기-면제는 개인의 비도덕적인 행동이 자신의 결정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환경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

이러한 8가지의 심리·사회적 메커니즘을 통해 도덕적 이탈의 정도가 높을수록 이탈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8가지 도덕적 이탈 모델은 지금까지 제시한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 주목받고 있다(곽금주, 1998; 박영신, 김의철, 2001a; 박영신, 김의철, 2001b;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 특히 도덕적 이탈과 비도덕적 행동 간의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곽금주, 1998; Bandura et al., 1996). Bandura(1991)는 도덕적 이탈의 8가지 구조를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기제재 없이 개인의 도덕적 기준을 위반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도덕적 이탈은 위반하기 쉬운 행동과 위반한 행동을 조절하는 정서적 자기반응 간의 조절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도덕성의 억제국면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김선옥, 양명환, 2017).

도덕적 이탈은 학자들마다 연구하는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선옥, 양명환, 2017). 도덕적 이탈의 구조를 1가지 차원으로 보는 연구(연구(김선옥, 오영택, 양명환, 2018; Caprara & Capanna, 2005; McAlister, 2001)와 4가지 차원의 구조의 연구(김선옥, 양명환, 2017; McAlister, Bandura & Owen, 2006; Osofsky, Banura & Zimbardo, 2005), 그리고 5가지 차원으로 보고한 연구(김선옥 등, 2016)등 다양한 구조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Bandura(1991)는 도덕적 이탈 개념의 핵심 모형을 4가지 차원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인지 재구조화(cognitive restructuring)로 비도덕적인 행동자체를 도덕적인 행동으로 재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덕적 정당화와 완곡한 라벨링, 그리고 유리한 비교 메커니즘이 포함된다. 두 번째 차원은 행위의 책임을 중요시 생각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책임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책임 축소화(minimizing responsibility for action)로서 책임전가와 책임분산이 이에 해당된다. 세 번째 차원은 부정적 결과 왜곡(distortion of negative consequence)으로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에 초점을 맞추며, 결과왜곡 메커니즘이 포함된다. 네 번째 차원은 비인간화/비난귀인(dehumanization/attribution of blame)으로 행동에 대한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할 때 발생되며, 비인간화와 비난귀인 메커니즘이 포함된다.

이처럼 도덕적 이탈은 수많은 맥락에서 연구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구조로 보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도덕적 이탈 수준과 점수가 높으면 도덕성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이탈을 연구한 최초의 경험적 연구에서 Bandura와 동료들(Bandura et al., 1996)은 도덕적 이탈이 싸움이나 상대방에게 상해 입히기, 그리고 타인에



게 언어적 폭력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절도나 폭행, 마약과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비행행동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스포츠 현장에서도 도덕적 이탈 요인 중 도덕적 정당화와 책임전가 두 요인이 확인되었다고 보고되었다(Broadley & Kavussanu, 2007; Long, Pantaleon, Bruant, d'Arripe-Longueville, 2006). 도덕적 정당화는 팀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한 경우가 해당되고, 책임전가는 자신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 주요타자인 코치나 감독, 부모 등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 보고한 경우가 해당된다. 국내의 스포츠 현장에서도 도덕적 이탈이 반사회적 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선옥, 양명환, 2013, 2017; 김선옥, 등 2016; 김선옥, 등, 2018). 이처럼 도덕적 이탈은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구인으로 작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코칭유형

##### 1) 코칭이란

스포츠 현장에서 코칭이란 코치가 행해야 할 의무로써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훈련에 임할 때 종목의 전문 지식과 체력, 기술, 전술 및 전략 등의 훈련방법과 선수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코치가 지녀야 할 지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박정근, 2001). 또한 코치는 선수의 관계에서 단순히 경기력 향상만을 위해 선수를 가르치는 행위가 아닌 선수들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최의창, 2012).

Martens(1987)는 코칭이란 코치가 팀 목표를 계획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훈련과 팀을 이끄는 총체적인 행위, 또는 코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선수들을 지도하는 상호작용을 통한 형태라고 보고하였다.

Weinberg와 Gould(2003)는 코치가 팀 목표와 개인목표를 선수들에게 제시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종합적으로 코칭의 정의는 코치가 선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장을 위한 역할을 해주는 총체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코치의 지도방법은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코칭은 선수들의 심리적 측면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최마리, 김병준, 2008), 코치에 대

한 신뢰를 형성(이주일, 2001)시킬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동기(성창훈, 1999)와 만족(고용주, 김영미, 2003), 그리고 응집력(정지혜, 2004)처럼 팀 구성원으로써의 만족과 개인적인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코칭행동은 선수들의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코치를 얼마나 신뢰하고 인식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다르게 나타난다(강종구, 2010). 선수들이 코칭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높게 평가하거나, 코치에 대한 신뢰감을 더욱 높게 된다(Martens, 1990). 반면에 코칭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했을 경우에는 선수들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함으로써 선수들의 자신감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코치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된다(Martens, 1990).

이처럼 코치의 지도유형과 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치의 유형에 따라서 선수들의 심리적·신체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코치의 코칭행동 유형은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의거하여 두 개의 방식인 자율성지지 코칭행동(autonomy-supportive coaching behaviors)과 통제적 코칭행동(controlling coaching behaviors)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Deci & Ryan, 2008; Ryan & Deci, 2002, 양명환, 2015 재인용).

## 2) 자율성지지 코칭행동(autonomy-supportive coaching behaviors)

사회적 맥락에서 자율성지지 코칭은 코치와 선수의 상호관계에서 권위적인 위치의 코치가 선수에게 통제나 요구를 최소화하면서, 선수 개인의 감정과 의사를 이해하고 개인의 선택을 위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Black & Deci, 2000). 또한 의사 결정에 있어 자기주도에 가치를 둘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문제해결과 그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지지해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Grolnick & Ryan, 1989; Mageau & Vallerand, 2003).

스포츠 현장에서의 자율성지지 코칭행동은 선수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코치로부터 선수의 선택이나 노력, 즉 개인의 의지적인 행동을 지지받는 것을 의미한다(Reeve, 2002; 김기형, 박중길, 2009 재인용). 자율성 지지코칭은 스포츠 상황에서 선수들의 기본적인 욕구나 동기, 그리고 정서적 조절에 긍정적으로 예측된다고 보고되고 있다(Amorose & Anderson-Butcher, 2007; Bartholomew, Ntoumanis, Ryan, Bosch & Thøgersen-Ntoumani, 2011; Mageau & Vallerand, 2003).

### 3) 통제적 코칭행동(controlling coaching behaviors)

통제적 코칭은 코치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선수의 의지에 관계없이 권위적으로 강제적인 방식을 통해 선수들에게 지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중길, 김기형, 2013; 양명환, 2015). 통제적 코칭유형은 코치 자신의 믿음에서 비롯되는 의사결정이자 특정한 행동이다(Mageau & Vallerand, 2003). 특히 통제적 방식은 선수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코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이끌어 가기 위한 전략들로 구성되어 있다(Bartholomew, Ntoumanis & Thøgersen-Ntoumanis, 2009). 통제적 방식을 통해 코칭을 하는 코치들은 선수들의 자율적인 의견과 행동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과 욕구를 위해 선수들에게 강요하여 훈련을 지도하게 된다(송용관, 천승현, 장윤정, 김보람, 2016).

통제적 코칭은 다음과 같이 통제적인 전략으로 설명될 수 있다(송용관, 천승현, 2012; Assor, Roth & Deci, 2004; Bartholomew et al., 2009).

첫째, 보상을 활용한 통제는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촉진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활용되는 보상이다.

둘째, 사생활 간섭은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이 과도한 통제와 강요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선수들에게 언어적 위협을 가하는 통제전략이다. 언어적 위협을 통해 선수들에게 위압감 조성 등의 통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부정적인 조건적 관계는 코치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수가 행동할 때 제공되는 조건적인 관심이나 보살핌 등의 코칭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통제적 코칭행동을 개념화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Bartholomew와 동료들(Bartholomew et al., 2010)은 통제적 코칭행동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의 구성은 보상을 활용한 통제와 부정적인 조건적 관계, 위협/협박, 과도한 개인통제의 다차원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제적 코칭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코치가 강압적이고 경쟁심을 유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수들을 지도한다면 선수들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되고(성창훈, 홍준희, 최은규, 2004), 엄격한 집단규정과 승리지상주의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김영갑, 박용우, 김동규, 2006) 등의 쟁점이 유발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코치의 통제적 코칭은 선수들에게 심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경쟁을 유발하여 통제적 동기를 높여 따라 코치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Blanchard et al., 2009).

## 5. 사회적 행동

사회인지이론(Bandura, 1991)을 바탕으로 사회적 행동을 스포츠심리학에서는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과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Kavussanu, 2006; Sage, Kavussanu & Duda, 2006).

1) **친사회적 행동**(behavior)이란 개인이 행한 행동 뒤에 기대되는 외적인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친사회적 행동(prosocialia 타인 또는 다른 집단을 자발적으로 돕는 행동을 의미한다(Eisenberg, Fabes & Spinrad, 2006). 여러 학자들(Eisenberg & Miller, 1987; Eisenberg & Mussen, 1989)은 친사회적 행동을 반사회적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분류하면서 타인과의 협동이나 돕기, 관계형성, 도움주기, 그리고 도덕적 행동 등과 같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도덕적 행동을 하면서 외적인 기대나 보상 없이 타인을 도우려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타인을 돕거나 도움을 주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지언, 2016; Eisenberg et al., 2006; 김선옥 등, 2016 재인용).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친사회적 행동 발달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형성과정을 부모나 또래, 그리고 교사의 모델링을 통해 강화된다고 보고하였다(손현섭, 2000; Askers, 1998). 모델링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이 형성되고,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보상이 주어지게 되면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이지언, 2016).

스포츠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의 예로는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경기 중 넘어진 상대선수를 일으켜주는 행동, 그리고 팀 동료를 격려하기 등과 같은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친사회적 행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타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의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의지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친사회적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될 수 있다.

2) **반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이란 타인을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공격적인 행동 또는 사회적 규범과 권위에 도전하는 범죄행동 등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 생활의 질을 감소시키는 이기적인 행동을 의미한다(Miller, Lynam & Leukefeld, 2003).

반사회적 행동의 정의는 학문분야와 학자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Sage와 동료들(Sage et al., 2006)은 반사회적 행동을 타인에게 상해나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Walker와 동료들(Walker, Severson & Feil, 1995)은 반사회적 행동의 정의를 사회규범이나 관습을 벗어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타인의 권위에 반발하여 타인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이나 적대감 등의 다양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이양희, 최서윤, 2001). 또한 Loeber와 Dishion(1983)는 반사회적 행동을 “절도나 방화, 파괴, 거짓말 등과 같이 일탈적인 행동들과 공격적 행동 모두를 의미한다고 하였다(김태련, 이경숙, 1992).

이처럼 반사회적 행동은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일탈행동까지 포함하는 개념(McCarthy, Langner, Gersren & Einsberg, 1975)으로서 공공의 가치체계를 벗어나거나 사회적 기준 및 관습을 위반하며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비도덕적 행동까지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조경민, 2012),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장애를 유발하는 심리적인 부적응 행동도 포함한다고 보고하였다(오영진, 2010). 이처럼 반사회적 행동은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주로 시작되며, 공격성의 표출과 비행 행동과 같은 범죄행동 등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Loeber, 1988). 또한 반사회적 행동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유형(Life-Course Persistent)과 청소년기에만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유형(Adolescence Limited)으로 구분된다(이지연, 2016). 사회발달이론에 의하면 반사회적 행동을 어린 시절에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사회적 성향을 갖게 된다고 보고하였다(Chung, Hill, Hawkins, Gilchrist & Nagin, 2002).

반사회적 행동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보면 반사회적 행동은 개인과 환경, 그리고 문화적 요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스포츠 환경에서의 도덕적 행동 기준은 종목에서 적용되는 규범적 체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스포츠 반사회적 행동은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스포츠 종목 자체의 규범적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 모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임변장, 2000; 한이석, 2004). 일반적으로 스포츠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의 예로는 경기규칙을 위반하거나, 불법약물 복용(doping), 심판판정에 승복하지 않기, 그리고 실력이 낮은 선수를 비난하기 등과 같은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포츠 상황에서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원인을 살펴본 결과, 가장 큰 원인으로 성공을 위한 관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수들에게 가장 큰 성공이란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한 가지 목표에 대해 여러 가지 방향이나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스포츠 환경에서는 승리와 패배로 구분되기 때문에 선수들이나 코치들은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김광기, 2001). 이처럼 스포츠 현장에서는 승리를 위해서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선수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행동들은 개인의 의지나 코치의 지시로 인한 경기규칙을 위반하는 행동(Kavussanu, et al., 2006)과 자신보다 기능이 낮은 동료들을 비난하는 행동(Shields, LaVoi, Bredemeier & Power, 2007), 심판을 속이기 위하여 부상당한 것처럼 행동하기(Long et al., 2006)등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스포츠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 6. 선행연구

### 1) 성취목표성향과 자기조절동기, 도덕적 이탈, 코칭유형,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 (1) 성취목표성향과 자기조절동기 간의 관계

양명환(2011)의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과 자기조절동기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 과제목표성향이 자율적 동기(내재적 동기, 확인적 조절동기)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제적 동기(내압적 동기, 외적동기, 무동기)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재호(2006)는 스포츠에 참여할 때 내적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과제목표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과제목표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게 경기에서 패배했을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동기수준을 유지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스포츠 맥락의 여러 연구(유진, 박성준, 1995; Duda, Chi, Newton & Walling, 1995; Goudas, Biddle & Fox 1994; Mitchell, 1996)들로부터, 과제목표성향이 자아목표성향보다 내재적 동기와 확인적 조절동기와 같은 자율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Moreno와 동료(Moreno, Hellin, Hellin, Cervello & Sicilia, 2008)들의 스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과제목표성향이 자아목표성향보다 자율적 동기에 더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tandage와 Treasure(2002)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수업에서 성취목표성향과 다차원 상황적 동기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과제목표성향은 자기결정성이 높은 상황적 동기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목표성향은 자기결정성이 낮은 동기와 낮은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과제목표성향은 자기결정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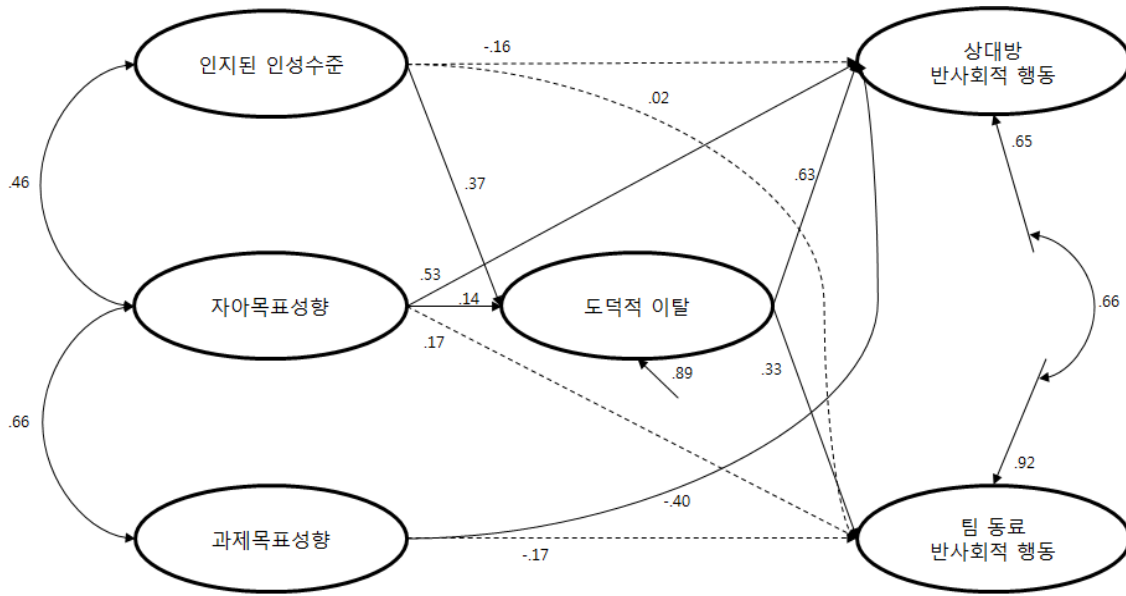
높은 자기조절동기, 즉 자율적 동기를 촉진한다고 말할 수 있다(양명환, 2011).

(2) 성취목표성향과 코칭유형 간의 관계

박민원(2007)의 태권도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이 성취목표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유승원(2006)과 최완욱(2012)의 연구에서도 골프지도자의 지도행동 유형에 따라 성취목표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3) 성취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간의 관계

Boardley와 Kavussanu(2010)의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목표성향이 도덕적 이탈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도덕적 이탈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선옥, 양명환(2013)의 축구선수들과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목표성향이 도덕적 이탈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Final structural model. Solid lines indicate significant relationships ( $p < .05$ ), and dotted lines indicate nonsignificant relationships ( $p > .05$ ).

그림 1. 인지된 인성수준, 성취목표성향, 도덕적 이탈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Boardley & Kavussanu, 2010)

#### (4) 성취목표성향과 친사회적·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여러 선행연구들(Boardley & Kavussanu, 2010; Kavussanu, 2006; Sage & Kavussanu, 2007)에서는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에는 정(+ )적인 관계가 있고, 과제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Duda 등(Duda, et al., 1991)과 Kavussanu 등(Kavussanu & Roberts, 2001)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농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성취목표성향 중 자아목표성향이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Dunn과 Dunn(1999)의 아이스하키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목표성향이 의도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과 상관 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Todd와 Hodge(2001)의 럭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목표성향이 낮은 도덕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Boardley와 Kavussanu(2010)의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목표성향이 도덕적 이탈과 반사회적 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의 김선욱, 양명환(2013)의 연구에서도 자아목표성향이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자아목표성향은 비신사적인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제목표성향은 선행연구들(Duda et al., 1991; Dunn & Dunn, 1999)을 통해 스포츠퍼슨십 즉, 친사회적 행동과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2) 자기조절동기, 코칭유형, 도덕적 이탈, 친사회적·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 (1) 자기조절동기와 코칭유형 간의 관계

자기조절동기와 코칭유형 간의 관계에서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도자의 코칭행동이 선수의 내적동기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Amorose와 Horn(2000)의 미국 대학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코칭행동이 선수의 내적 동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지도자의 코칭행동이 훈련과정에서 지도자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제공하고, 선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등의 자율성지지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선수들이 그렇지 않다고 인식한 선수들에 비해 운동에 참여하는 내적 동기가 더욱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스포츠 현장에서 자기결정이론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많은 선행연구들은 자율성지지 코칭행동이 선수들의 자율적 동기와 상관 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기형, 박중길, 2009; 박중길, 김기형, 2013; 양명환, 2011, 2015). 양명환(2015)의 연구에서는 통제적 동기가 통제적 코



칭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2) 자기조절동기와 도덕적 이탈 간의 관계

Hodge와 Lonsdale(2011)의 연구에서는 통제적 동기가 도덕적 이탈에 정(+)<sup>1</sup>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의 김선욱과 양명환(2017)의 연구에서는 도덕적 이탈이 통제적 동기와 정(+)<sup>1</sup>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율적 동기와는 부(-)<sup>1</sup>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김선욱 등(2018)의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통제적 동기가 도덕적 이탈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3) 자기조절동기와 친사회적 행동·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여러 선행연구(Hodge & Lonsdale, 2011; Ntoumanis & Standage, 2009; Shields & Bredemeier, 2007)들의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자율적 동기를 가진 선수들이 운동에 참여할 때 즐겁고 상대방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려는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적 동기를 가진 선수들은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우월함을 보여주려고 하거나 외재적인 보상과 사회적 인정 등을 받기 위해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자율적 동기는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구인으로 작용되고, 통제적 동기는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구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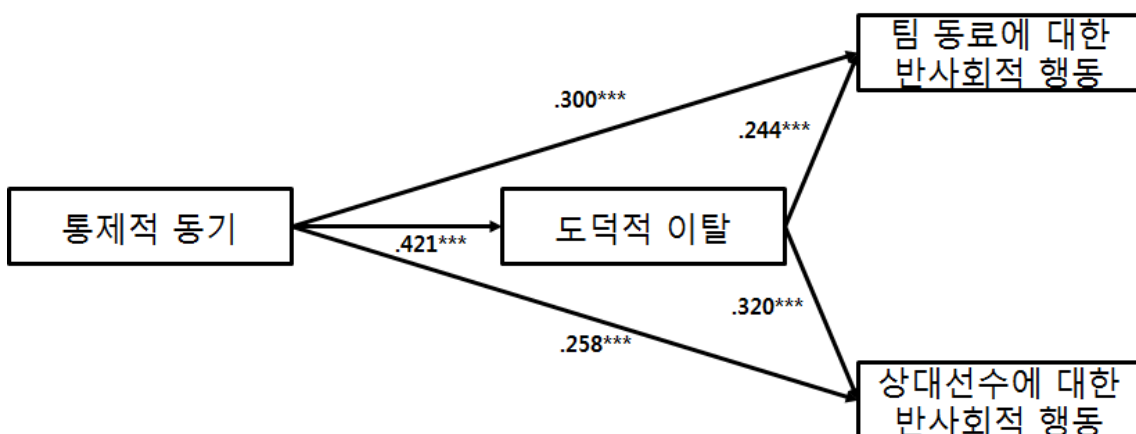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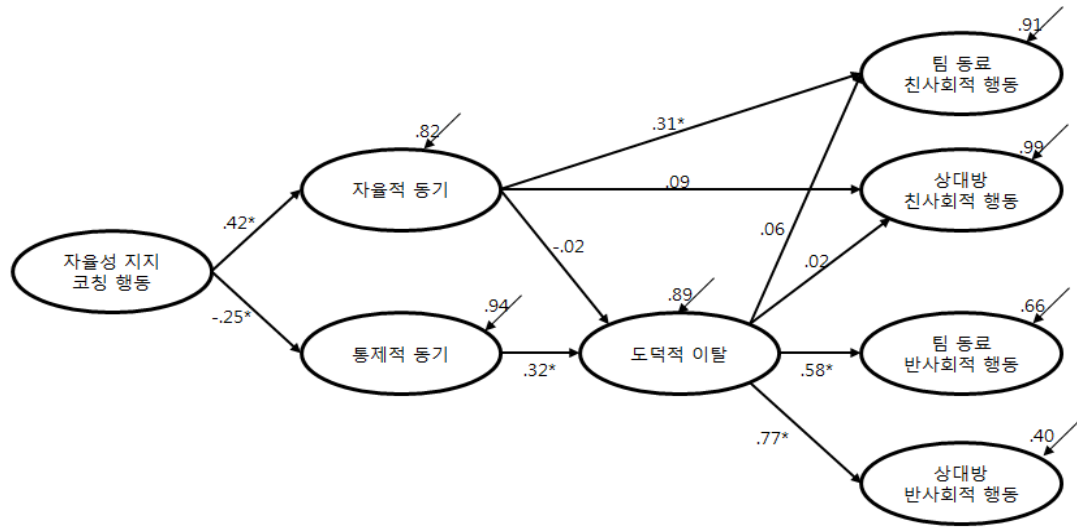


그림 2. 통제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김선욱, 오영택, 양명환, 2018)



\*Indicates the path estimat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 $p < .05$ ).

그림 3. 자율성 코칭, 자기조절동기, 도덕적 이탈,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Hodge & Lonsdale, 2010)

#### (4) 코칭유형과 도덕적 이탈 간의 관계

선수들이 운동에 참여할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주요타자는 코치이다. 주요타자로부터 받는 동기분위기(수행분위기, 숙달분위기)에 의해 선수들이 도덕적 이탈에 관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선욱, 2015). 구체적으로 동기분위기 하위요인인 수행분위기는 도덕적 이탈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숙달분위기는 도덕적 이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욱 등(2016)의 연구에서는 통제적 코칭이 도덕적 이탈 하위요인(유리한 비교, 책임전가, 결과왜곡, 비인간화, 비난귀인)에 모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율성지지 코칭은 도덕적 이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5) 코칭유형과 친사회적 행동·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Rutten과 동료들(Rutten et al., 2008)은 선수들이 코치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선수 개인의 자율성을 지지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선수들은 친사회적 성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Hodge & Guccuardi, 2015; Yukhymenko-Lescroart, Brown & Paskus, 2015)에서는 선수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통제적 코칭은 선수들의 부정적인 정서와 심리적 결과, 그리고 수행 저하 등의 도덕적 이탈 및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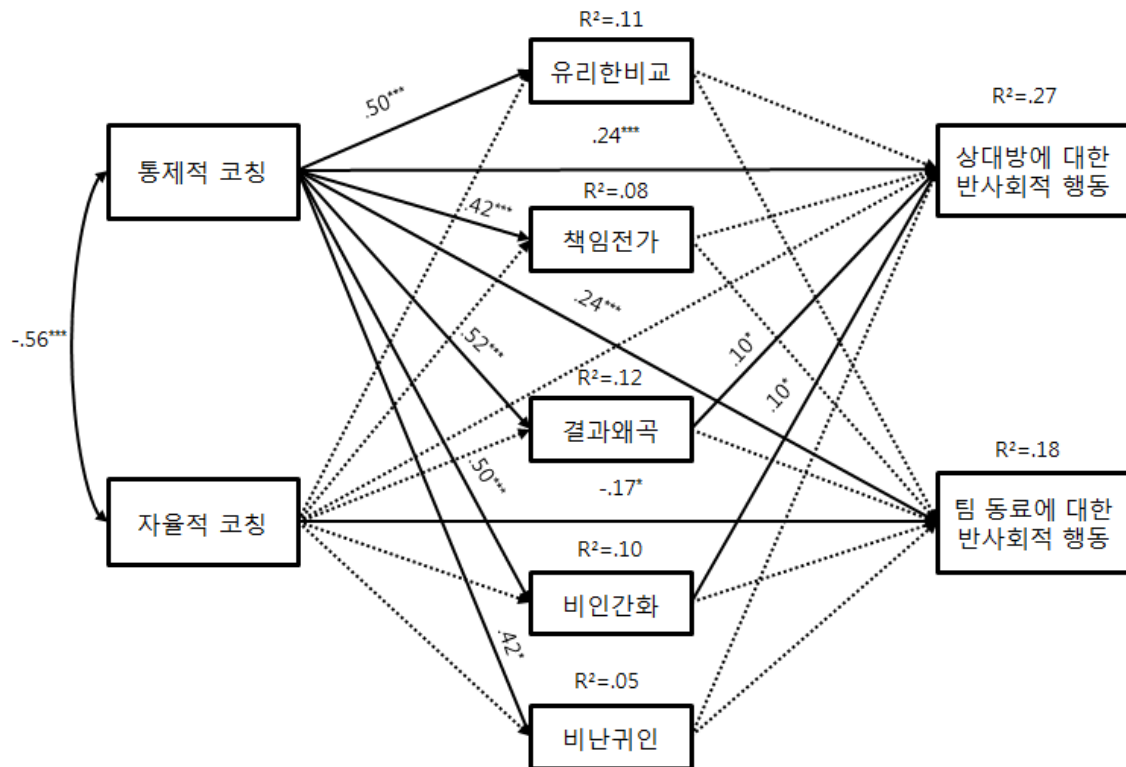


그림 4. 코칭유형, 도덕적 이탈,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김선옥, 오영택, 부남철, 양명환, 2016)

(6) 도덕적 이탈과 친사회적 행동·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국내에서 이루어진 도덕적 이탈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도덕적 이탈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이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김선옥, 2015; 김선옥, 양명환, 2013).

Long과 동료들(Long et al., 2006)의 어린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신이 행한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책임을 축소시켜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덕적 이탈을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Boardley와 Kavussanu(2007)의 연구에서는 도덕적 이탈에 관여하는 선수들은 주로 팀 종목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도덕적 이탈을 주로 상대 선수들에게 행하는 반사회적 행동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덕적 이탈은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구인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김선옥, 2015),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을수록 반사회적 행동의 관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Ⅲ. 연구 1

#### 1. 문제 제기

##### 1) 연구목적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은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지킴으로써 선수와 해당 종목과 관련한 스텝, 스포츠를 즐기는 관객들에게도 매우 우호적인 평가를 받는 선수가 있다. 반면 생각했던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 혹은 같은 팀 선수들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불만, 짜증을 내는 행위를 표출함으로써, 스포츠를 관람하는 관객, 스포츠를 시작하는 어린 학생선수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동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엘리트선수들은 훈련의 과정보다 경기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시합상황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지나친 욕구에 의해서 과도한 행동들이 표출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Kavussanu & Boardley(2009)에 의해서 친사회적,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차원적으로 개념화 되어 설명되어 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을 돕거나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규정(Eisenberg et al., 2006), 반사회적 행동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불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의적인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Kavussanu et al., 2006; Sage et al., 2006).

이와 같은 친사회적,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변인들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성취목표성향을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자신의 기준에서 성공여부와 능력을 평가하는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타인을 기준으로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여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김선욱 등 2013; Boardley et al., 2010; Kavussanu, 2006; Sage et al., 2007)에 의하면, 과제목표성향은 친사회적 행동과 연결성이 있으며, 자아목표성향은 반사회적 행동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를 중재시킬 수 있는 제3의 변인들을 모색하고 이들 간의 순차적인 연구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기조절동기와 도덕적 이탈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Ryan & Deci(2000)의 자기결정이론에 의하면 자율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는 운

동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율적 동기가 높은 선수들은 탈진을 낮게 인지하고 있으며(Cresswell & Eklund, 2005), 운동 몰입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임선영, 이연수, 2013). 반면, 통제적 동기(controlled motivation)내적인 심리적 압박이나 대인간에 심리적으로 느끼는 압박감으로 인해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운동의존성(오영택, 양명환, 2016), 운동 탈진(오영택, 등 2016), 반사회적 행동(김선옥, 오영택, 양명환, 2018)을 유발시키는 선행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도덕적 이탈은 행동에 대한 동기보다 행동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일삼지만, 이들은 그 행동 자체가 부정적인 행동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Bandura, 1991). 이는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김경연, 하영희, 2003), 교육학(주민하, 임성문, 2017) 분야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과제목표성향과 자율적 동기, 도덕적 이탈, 친사회적 행동 간의 순차적인 관계모형을 검증할 것이며, 자아목표성향과 통제적 동기, 도덕적 이탈,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운동선수들의 과제목표성향이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율적 동기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도덕적 이탈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아목표성향이 높은 선수들은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훈련에 참여하는 통제적 동기에 의해서 도덕적 이탈을 더 높게 평가하여 반사회적 행동을 높게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의미 있게 도출된다면 스포츠심리학 분야에서는 자아목표성향의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강압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면 운동선수로서 비신사적인 행동들을 시합상황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으킬 위험성이 높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의미 있게 도출해냄으로써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인과관계를 모색하고 이론적 모형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에, 연구 1의 목적은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개인적 변인인 자기조절동기와 도덕적 이탈이 이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있다.

## 2)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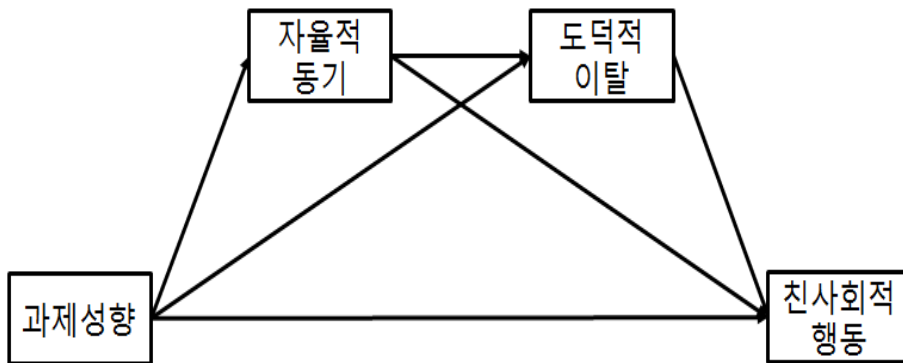


그림 5. 과제목표성향이 자율적동기와 도덕적 이탈,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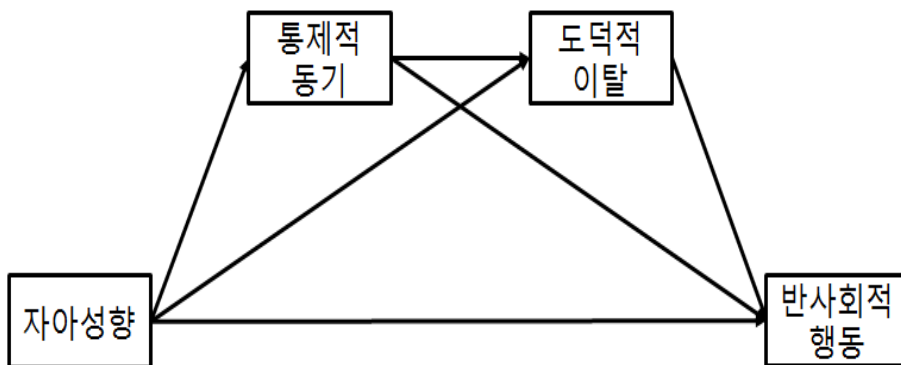


그림 6. 자아목표성향이 통제적동기와 도덕적 이탈,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3) 연구가설

### (1) 연구 가설 1

- 1-1, 과제목표성향은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자율적 동기는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도덕적 이탈은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4, 과제목표성향은 자율적 동기를 경유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간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 1-5, 과제목표성향은 도덕적 이탈을 경유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간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 1-6, 과제목표성향은 자율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을 경유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간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 가설 2

2-1, 자아목표성향은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통제적 동기는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도덕적 이탈은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자아목표성향은 통제적 동기를 경유하여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간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자아목표성향은 도덕적 이탈을 경유하여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간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2-6, 자아목표성향은 통제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을 경유하여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간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연구 1의 대상자들은 2018년 1월 제주평화기 대회 및 국가대표최종선발전에 참가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선수들로 총 255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집방식인 편의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였으며 검사지는 269부가 회수되었으나, 반응고정화 현상을 보이는 응답과 무기입 되어있는 자료 14부를 제외한 255명의 자료만을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고등부 139명(54.5%), 대학부 60명(23.5%), 일반부 56명(22%) 총 25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측정도구

연구 1의 자료를 측정하기 위해 성취목표성향, 자기조절동기, 도덕적 이탈, 친사회적·반사회적 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추출하였고, 자료의 약 50%를 무작위로 선별하여(n=130)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 (1) 성취목표성향(Achievemen Goal Orientation)

성취목표성향 측정은 Duda & Nicholls(1992)가 개발한 TEOSQ(Task and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를 김병준(2001)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척도를 자구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과제목표성향 7문항, 자아목표성향 6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나 혼자만이 어떤 플레이나 기술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3개의 문항을 제거하고 10문항으로 구성된 2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835,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chi^2=954.395$ ,  $df=45$ ,  $p<.000$ ).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과제목표성향 .84, 자아목표성향 .77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87.775$ ,  $df=33$ ,  $p<.000$ ,  $Q=2.660$ ,  $IFI=.942$ ,  $TLI=.919$ ,  $CFI=.941$ ,  $RMSEA=.081$ ).



## (2) 자기조절동기

자기조절동기의 측정은 자기결정성 이론의 개념적 틀을 사용하고 있는 선행연구(Guay, Vallerand & Blanchard, 2000; Pelletier et al., 1995)를 기반으로 양명환(2004)이 개발한 13문항의 레저스포츠동기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20문항의 동기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율적 동기 8문항, 통제적 동기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운동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에”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 7점 Likert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3개의 문항을 제거하고 17문항으로 구성된 2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880,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chi^2=3202.885$ ,  $df=190$ ,  $p<.000$ ).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자율적 동기 .92, 통제적 동기 .90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320.041$ ,  $df=111$ ,  $p<.000$ ,  $Q=2.883$ ,  $IFI=.934$ ,  $TLI=.919$ ,  $CFI=.934$ ,  $RMSEA=.086$ ).

## (3) 도덕적 이탈

도덕적 이탈의 측정은 Boardley와 Kavussanu(2007)가 개발한 스포츠 도덕적 이탈척도 MDSS(Moral Disengagement in Sport Scale)를 김선옥, 양명환(2017)이 국내의 스포츠상황에 맞게 변안하여 타당화 검증을 실시한 척도인 한국판 스포츠 도덕적 이탈 척도(KMD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요인(인지 재구조화, 책임축소화, 부정적 결과왜곡, 비인간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예로서 “승리를 위해서라면 경기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Likert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선행연구(김선옥, 양명환, 2013; Caprara & Capanna, 2005; McAlister, 2001)와 같이 도덕적 이탈 합성점수(composite score)를 사용하였다.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1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995,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chi^2=5204.598$ ,  $df=120$ ,  $p<.000$ ).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97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Q값과 RMSEA값을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460.538$ ,  $df=99$ ,  $p<.000$ ,  $Q=4.652$ ,  $IFI=.931$ ,  $TLI=.916$ ,  $CFI=.931$ ,  $RMSEA=.120$ ).

#### (4)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 측정은 Kavussanu와 Boardley(2009)가 개발한 친사회적·반사회적 스포츠행동척도(The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Sport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팀 동료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4문항, 팀 동료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 5문항, 상대선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3문항, 상대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 8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팀 동료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과 상대선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묶어 친사회적 행동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팀 동료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과 상대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을 묶어 반사회적 행동 요인으로 구성하여 총 2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예로서 “나는 상대선수에게 부상을 입히려고 노력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하지 않았다’(1점)에서 ‘매우 자주하였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3개의 문항을 제거하고 17문항으로 구성된 2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914,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chi^2=4078.189$ ,  $df=136$ ,  $p<.000$ ).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친사회적 행동 .88, 반사회적 행동 .95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Q값과 RMSEA값을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493.160$ ,  $df=111$ ,  $p<.000$ ,  $Q=3.956$ ,  $IFI=.919$ ,  $TLI=.901$ ,  $CFI=.919$ ,  $RMSEA=.108$ ).

###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8년 1월 제주평화기 대회 및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 참가한 고등부, 대학부 및 일반부 선수들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경기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독 및 코치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검사지를 배부한 후 응답요령 등의 부차적인 설명과 성실한 응답을 해줄 것을 부탁한 뒤, 질문지 응답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특히 연구윤리에 따라서 응답참여 여부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참가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질문지를 완료하는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부된 질문지는 총 269부였으나 응답 고정화 현상을 보이는 자료와 50%이상 응답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55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자료분석

최종적으로 선정된 자료들은 SPSS 18.0과 SPSS PROCESS Macro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으며, 구성 개념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chi^2$ 검증을 기본적으로 평가하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크기와는 비교적 독립적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나타내주는 RMSEA, IFI, TLI 및 CFI 등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적합도 지수들은 Q값이 3이하(kline, 2005), IFI, TLI, CFI와 같은 상대적 지수들의 값은 .90이상 되어야 양호하며(Bentler, 1990), RMSEA값은 .05이하이면 매우 우수하고, .05~.08은 양호하며, .08~.10은 수용 가능하다는 준거(Browne & Cudeck, 1993)를 갖고 평가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Pearson's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성취목표성향(과제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과 사회적 행동(친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동기와 도덕적 이탈의 연속다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속다중매개모형 또는 직렬다중매개모형의 목적은 독립변수(성취목표성향)가 매개변수 1(자율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수 1(자율적 동기)은 매개변수 2(도덕적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등 매개변수간의 순차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종속변인(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가 2개인 직렬다중매개모형으로서 이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성취목표성향)가 4개의 경로를 통하여 종속변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즉, 성취목표성향→자기조절동기→도덕적 이탈, 성취목표성향→도덕적 이탈→사회적 행동, 성취목표성향→자기조절동기→도덕적 이탈→사회적 행동, 성취목표성향→사회적 행동 4개의 경로이다.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매개모형은 순차적인 성취목표성향→자기조절동기→도덕적 이탈→사회적 행동 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의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통제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PROCESS는 조절분석, 매개분석 및 조건부

간접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프로그램이며, 본 연구에서는 76개의 모형 중 6번째 모형을 적용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존 다른 유의성 검증 방식과 달리 정규성 분포를 가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통계적 모의실험 절차를 통하여 대규모의 가상 무선 표본(예: 10,000개)을 만든 후 매개효과가 무선오차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방식이다(Shrout & Bolger, 2002).

### 3. 연구 결과

#### 1) 전체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

회귀분석을 검증하기에 앞서 첫 번째 단계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전체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분포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변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왜도, 첨도를 통해서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표 1. 전체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분포 특성

측정변인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왜도	첨도
과제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					
자율적 동기					
통제적 동기					
도덕적 이탈					
친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각 변인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은 과제목표성향은 1.00~7.00점에서 평균값이 5.10, 표준편차는 1.07로 나타났으며, 자아목표성향은 1.00~7.00점에서 평균값이 3.94, 표준편차는 1.55로 나타났다. 자율적 동기는 1.40~7.00점에서 평균값이 5.12, 표준편차는 1.10로 나타났으며, 통제적 동기는 1.00~7.00점에서 평균값이 3.07, 표준편차는 1.38로 나타났다. 도덕적 이탈은 1.00~7.00점에서 평균값이 4.89, 표준편차는 1.14로 나타났고, 친사회적 행동은 1.00~7.00점에서 평균값이 3.64, 표준편차는 1.37로 나타났으며, 반사회적 행동은 1.00~5.00점에서 평균값이 3.83, 표준편차는 .70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요인에서 왜도와 첨도 값이 절대값 2와 7이상을 넘지 않음으로써 측정변인들의 점수 분포가 정규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변인
과제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
자율적 동기
통제적 동기
도덕적 이탈
친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표 2>는 성취목표성향, 자기조절동기, 도덕적 이탈,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제목표성향은 자아목표성향, 자율적 동기,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 반사회적 행동에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목표성향은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덕적 이탈과 반사회적 행동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동기는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적 동기와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적 동기는 도덕적 이탈과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사회적 행동에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이탈은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사회적 행동에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이 적절한 수준의 상관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개분석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과제목표성향과 자율적 동기, 도덕적 이탈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경로분석

먼저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율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의 다중매개 효과 검증을 도해한 결과는[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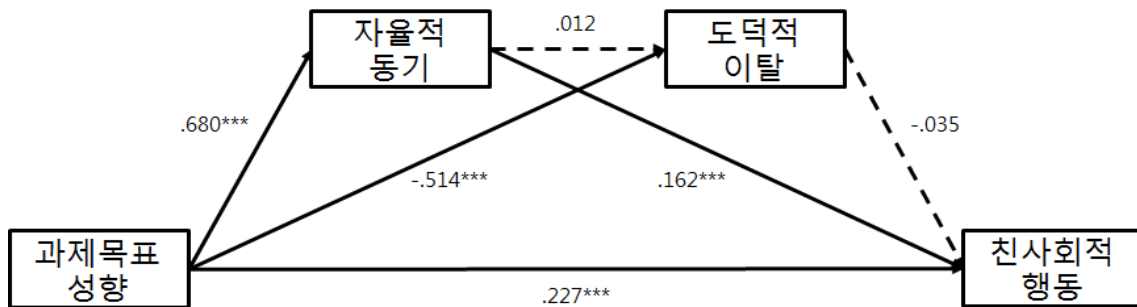


그림 7.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율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의 다중매개효과 모형

과제목표성향은 종속변인인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227$ ,  $SE=.062$ ,  $t=3.6821$ ,  $p<.000$ ) 연구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매개변인 중 자율적 동기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680$ ,  $SE=.090$ ,  $t=7.5463$ ,  $p<.000$ ), 도덕적 이탈에도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514$ ,  $SE=.156$ ,  $t=-3.2864$ ,  $p<.001$ ).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자율적 동기, 도덕적 이탈이 종속변인인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자율적 동기는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1-2는 지지되었으나( $B=.162$ ,  $SE=.038$ ,  $t=4.2673$ ,  $p<.000$ ), 도덕적 이탈은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구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B=-.035$ ,  $SE=.024$ ,  $t=-1.4417$ ,  $p>.151$ ). 다음으로 자율적 동기가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자율적 동기는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012$ ,  $SE=.099$ ,  $t=.1178$ ,  $p>.906$ ).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자율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독립변인인 과제목표성향이 종속변수인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의 합인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355$ ,  $SE=.056$ ,  $t=6.2895$ ,  $p<.000$ ).

표 3. 과제목표성향과 자율적 동기, 도덕적 이탈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직접효과 검증

변 수
종속변인 자율적 동기
상수항 과제목표성향
종속변인 도덕적 이탈
상수항 자율적 동기 과제목표성향
종속변인 친사회적 행동
상수항 자율적 동기 도덕적 이탈 과제목표성향

### 3)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율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의 다중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자율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이 과제목표성향이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는 .128이며, 95% 편의교정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0675~.2015)이 0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율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 각각의 개별 매개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분석한 결과, 과제목표성향이 자율적 동기를 거쳐 친사회적 행동에 가는 경로 계수(B=.110)는 95% 편의교정신뢰구간(.0557~.1795)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과제목표성향이 자율적 동기를 경유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연구가설 1-4는 지지되었다. 또한, 과제목표성향이 도덕적 이탈을 거쳐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경로 계수(B=.018)는 95% 편의교정신뢰구간(-.0024~.0522)에서 0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제목표성향이 도덕적 이탈을 경유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구 가설 1-5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과제목표성향이 자율적 동기, 도덕적 이탈을 경유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가는 경로 계수(B=-.0003)는 95% 편의교정신뢰구간(-.0078~.0051)에서 0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제목표성향이 자율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을 경유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6은 기각되었다.



표 4.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다중매개변인의 총 효과 및 간접효과

총 효과
과제목표성향 친사회적 행동
간접효과
총 간접효과
과제목표성향 자율적 동기 친사회적 행동
과제목표성향 자율적 동기 도덕적 이탈 친사회적 행동
과제목표성향 도덕적 이탈 친사회적 행동
간접효과 대비

특정간접효과들의 대응별 비교 결과,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A와 B(.0562 ~.1807), A와 C(.0296 ~.1632)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두 간접효과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B와 C(-.0568~.0018)에서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어 이 두 집단 간에는 간접효과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자아목표성향과 통제적 동기 및 도덕적 이탈, 반사회적 행동 간의 경로분석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통제적 동기, 도덕적 이탈의 다중매개효과 검증에 도해한 결과는[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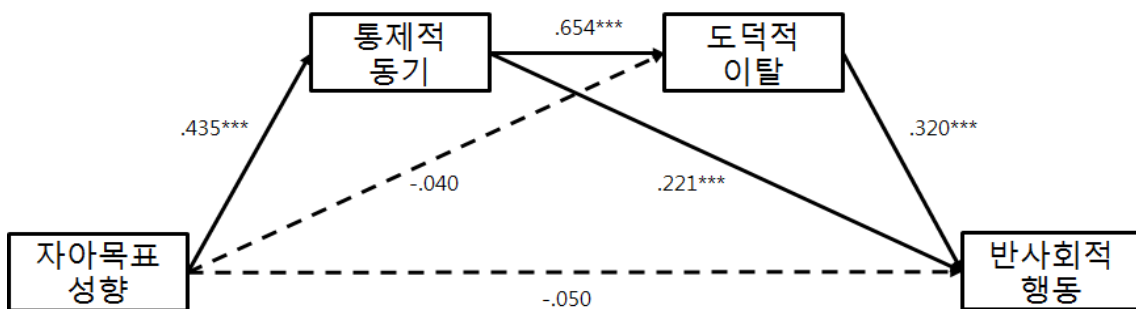


그림 8.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통제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의 다중매개효과 모형

자아목표성향은 종속변인인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B = -.050$ ,  $SE = .068$ ,  $t = -.7275$ ,  $p > .468$ ) 연구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자아목표성향은 매개변인 중 통제적 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 = .435$ ,  $SE = .113$ ,  $t = 3.8651$ ,  $p < .001$ ), 도덕적 이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40$ ,  $SE = .124$ ,  $t = -.3219$ ,  $p > .748$ ).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통제적 동기, 도덕적 이탈이 종속변인인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통제적 동기는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구 가설 2-2는 지지되었으며( $B = .221$ ,  $SE = .043$ ,  $t = 5.1055$ ,  $p < .000$ ), 도덕적 이탈도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구 가설 2-3은 지지되었다( $B = .320$ ,  $SE = .035$ ,  $t = 9.2602$ ,  $p < .000$ ). 다음, 통제적 동기가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통제적 동기는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654$ ,  $SE = .068$ ,  $t = 9.6971$ ,  $p < .000$ ).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통제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독립변인인 자아목표성향이 종속변수인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의 합인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129$ ,  $SE = .090$ ,  $t = 1.3807$ ,  $p > .169$ ).

표 5. 자아목표성향과 통제적 동기, 도덕적 이탈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직접효과 검증

변 수
종속변인 통제적 동기
상수항
자아목표성향
종속변인 도덕적 이탈
상수항
통제적 동기
자아목표성향
종속변인 반사회적 행동
상수항
통제적 동기
도덕적 이탈
자아목표성향

### 5)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통제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의 다중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통제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표 6>과 같이 자아목표성향이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는 .174이며, 95% 편이교정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0406~.3211)이 0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통제적 동기, 도덕적 이탈 각각의 개별 매개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분석한 결과, 자아목표성향이 통제적 동기를 거쳐 반사회적 행동에 가는 경로계수( $B=.096$ )는 95% 편이교정신뢰구간(.0377~.1866)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목표성향이 통제적 동기를 경유하여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4는 지지되었다. 또한 자아목표성향이 도덕적 이탈을 거쳐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경로계수( $B=-.013$ )는 95% 편이교정신뢰구간(-.0898 ~.0693)에서 0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목표성향이 도덕적 이탈을 경유하여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구가설 2-5는 기각되었다.

표 6.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서 다중매개변인의 총 효과 및 간접효과

총효과
자아목표성향 반사회적 행동
간접효과
총 간접효과
자아목표성향 통제적 동기 반사회적 행동
자아목표성향 통제적 동기 도덕적 이탈 반사회적 행동
자아목표성향 도덕적 이탈 반사회적 행동
간접효과 대비

자아목표성향이 통제적 동기, 도덕적 이탈을 경유하여 반사회적 행동에 가는 경로계수 ( $B=.091$ )는 95%편의교정신뢰구간(.0435~.1576)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목표성향이 통제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을 경유하여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 2-6은 지지되었다.

특정간접효과간의 대응별 차이 분석결과,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A와 B( $-.0580\sim.0799$ ), A와 C ( $-.0004\sim.2141$ )에서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효과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와 C( $.0166\sim.2091$ )의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간접효과 간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연구 1의 목적은 성취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동기와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선수 218명을 대상으로 선수들이 개인속성변인인 성취목표성향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것을 알아보고, 선수들의 운동에 참여하는 동기와 도덕적 이탈 수준이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다중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목표성향은 자아목표성향과 자율적 동기,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통제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결과는 박병훈(2011)의 연구와 박중길(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과제목표성향과 스포츠퍼스십이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자아목표성향이 도덕적 이탈과 반사회적 행동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김선옥, 양명환(2013)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로 보여 진다. 태권도는 개인종목으로 종목 특성 상 반칙을 하게 되면 즉시 감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아목표성향을 가진 선수들도 승리를 위해서 반사회적 행동이나 도덕적 이탈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지며, 축구나 농구 등 단체종목선수들은 자신의 행동이 팀의 다른 선수들이나 상대방 선수들에게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동에 오히려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사료된다.

이어서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먼저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과제목표성향은 매개변인인 자율적 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독립변인인 자아목표성향은 통제적 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명환(2011)의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제목표성향이 내재적 동기와 확인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와 박병훈(2011)의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과제목표성향이 내재적 동기와 확인적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자아목표성향이 외적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즉 과제목표성향이 높은 선수일수록 운동에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적 동기와 긍정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자아목표성향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욕구가 높아 운동에 참여하고(Ntoumanis, 2001), 승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동에 참여하는 통제적 동기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는 과제목표성향은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중길(2009)의 연구에서 과제목표성향을 가진 선수들이 스포츠퍼슨십을 긍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과제목표성향이 높은 선수들이 운동에 참여할 때 최선을 다하고, 동료선수들을 배려하며, 심판 판정에 승복하는 등 친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독립변인 자아목표성향은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Boardley & Kavussanu, 2010; Kavussanu, 2006; Sage & Kavussanu, 2007)의 결과들과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성향이나 종목의 차이뿐만 아닌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하여 재검증하여야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매개변인인 자율적 동기는 친사회적 행동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도덕적 이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율적 동기가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 Funk와 동료들(Funk, Shields & Bredemeier, 2016)의 연구와 Shields & Bredemeier(201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선수들이 자율적 동기가 높을수록 도덕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면서 친사회적 행동에 관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통제적 동기는 도덕적 이탈과 반사회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odge & Lonsdale(2011)의 연구와 김선욱 등(2018)의 연구에서 통제적 동기가 반사회적 행동을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특히 선수들의 통제적 동기가 높으면 자신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도덕성을 결여시키면서 반칙행위나 상대선수들을 배려하지 않는 등의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율적 동기가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적 동기가 도덕적 이탈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이탈은 반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친사회적 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김선욱, 2015; 김선욱, 양명환, 2013; Boardley & Kavussanu, 2007)의 결과처럼 도덕적 이탈이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적 동기는 정(+)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덕적 이탈을 통해서는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제목표성향이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율적 동기를 통해서도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Hodge와 Lonsdale(2011)의 연구에서 자율성지지 코칭유형과 팀 동료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적 동기가 정(+)의 매개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으로 주요타자인 코치나 부모 등으로 받는 자율적 지지나 개인적 성향인 과제목표성향은 개인의 자율성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더러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는 통제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 모두 정(+)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목표성향이 반사회적 행동을 직접적으로는 예측하지 못하지만 통제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을 통해서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과제목표성향을 가진 선수들이 통제적 동기가 높거나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을 경우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Boardley와 Kavussanu(2010)의 연구에서 자아목표성향과 팀 동료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과 상대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김선욱, 양명환(2013)의 국내 축구선수들과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도덕적 이탈이 매개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자아목표성향을 가진 선수들이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원인으로 도덕적 이탈이라는 매개변수가 작용됨을 말할 수 있다. 또한 김선욱 등(2018)의 연구에서는 자기조절 동기와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통제적 동기와 팀 동료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 그리고 상대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도덕적 이탈이 긍정적으로 매개역할 한다는 결과와 맥을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자아목표성향을 가진 선수들에게 통제적 동기가 높아지게 되면서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책임 등의 개인의 도덕성의 규제를 낮추는 등 도덕적 이탈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자아목표성향이 반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통제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을 경유하여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Hodge와 Lonsdale(2011)의 연구에서 통제적 코칭이 선수들에게 주어질 때 통제적 동기가 높은 선수들에게서 도덕적 이탈을 경유하여 팀 동료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과 상대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

수들이 가진 개인적 성향인 자아목표성향과 사회·환경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통제적 코칭유형이 선수들이 행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변인인 통제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이 반사회적 행동의 관여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과들을 토대로 보여 지고 있다.

요약하면,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과제목표성향을 지향하면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상대선수와의 승리나 제압의 목적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덕적 수준이 높으며 스포츠퍼슨십을 보이는 등 친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수들이 자아목표를 지향하면 구속감과 통제감을 갖고 참여하고 운동수행에 있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선수를 배려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도덕적 수준이 낮아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 IV. 연구 2

### 1. 문제 제기

#### 1) 연구목적

연구 1에서는 성취목표성향(과제목표성향·자아목표성향) → 자기조절동기(자율적 동기·통제적 동기) → 도덕적 이탈 →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과제목표성향 → 자율적 동기 →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자아목표성향 → 통제적 동기 → 반사회적 행동 간에는 명확한 매개효과가 입증되었고, 자아목표성향 → 통제적 동기 → 도덕적 이탈 → 반사회적 행동 간에 있어서 통제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의 다중매개효과도 의미 있게 도출되었으나, 과제목표성향 → 자율적 동기 → 도덕적 이탈 → 친사회적 행동 간의 다중매개효과는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의 관계, 도덕적 이탈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된 결과로 보여 진다. 자아목표성향인 경우에도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행동에도 유의한 관계를 갖지 못함으로써 도덕적 이탈이 성취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선행문헌들(김선옥, 양명환, 2013; Boardley & Kavussanu, 2010)에 비추어 볼 때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후속연구를 통하여 재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선행연구(Deci & Ryan, 2008; Ryan & Deci, 2002)에 의하면 자기결정이론을 바탕으로 코치의 행동은 두 개의 대인관계방식, 즉 자율성지지 코치유형과 통제적 코칭 방식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먼저, 자율성지지 코칭유형은 선수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요구를 최소화하면서 선수들의 관점과 기분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정보와 선택의 기회를 지지해주는 것으로(Black & Deci, 2000), 자율적 동기, 의도적 연습, 운동만족(양명환, 2015), 의도적 연습(오영택, 양명환, 2018), 친사회적 행동(Hodge & Lonsdale, 2010; Rutten, et al., 2008)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 통제적 코칭 유형은 선수들의 훈련과 관련된 동기 및 참여 행동을 저하시키며, 지도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선수들을 강압적인 행동으로 지도하는 것으로서, 도덕적 이탈(김선옥 등, 2016) 반사회적 행동(김선옥 등 2016; Hodge & Gucciardi, 2015) 등 부정적인 행

동을 유발시키는 선행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율성지지 코칭유형과 통제적 코칭유형은 도덕적 이탈과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변인임을 입증할 수 있다. 특히 선수들이 스포츠상황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영향이라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코칭유형이 도덕적 이탈과 사회적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연구 1에서 나타난 성취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명확하게 구명된 자기조절동기의 매개효과는 제외하고 연구 2에서는 성취목표성향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명확한 매개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도덕적 이탈변인만을 선정하여 단순매개효과를 명확하게 구명하고, 사회 환경적 변인인 코치의 코칭방식이 이 매개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구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특정매개변수만을 도입한 경우에는 간접효과가 나타나지만, 다중매개모형에서는 해당 매개변수의 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단순매개모형과 다중매개모형에서의 특정 간접효과는 다르게 검정되기 때문에 어느 결과가 정확한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Hayes(2013)의 주장에 근거하여 도덕적 이탈 구인을 자기조절동기와 분리하여 단순매개모형을 분석하고, 코칭방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 1과 연구 2의 순차적인 설계를 통하여 성취목표성향 → 자기조절동기 → 도덕적 이탈 → 사회적 행동 간의 다중매개효과를 구명하고 이 매개효과에 대하여 코칭유형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구명함으로써 성취목표성향과 사회적 행동변인들 간에 관여하는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의 효과를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가설

### (1) 연구 가설 1

1-1, 도덕적 이탈은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1-2,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는 자율성지지 코칭에 따라서 조절될 것이다.

1-3,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는 통제적 코칭에 따라서 조절될 것이다.

(2) 연구 가설 2

2-1, 도덕적 이탈은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2,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는 자율성 지지 코칭에 따라서 조절될 것이다.

2-3,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는 통제적 코칭에 따라서 조절될 것이다.

3)연구모형

연구 2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1) 연구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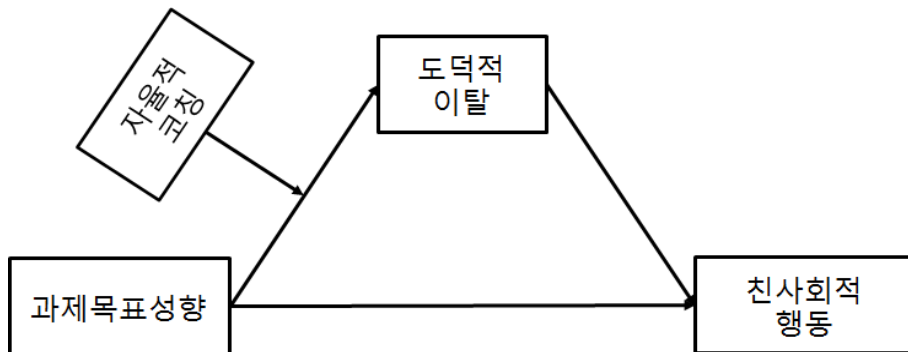


그림 9. 연구 모형 1

(2)연구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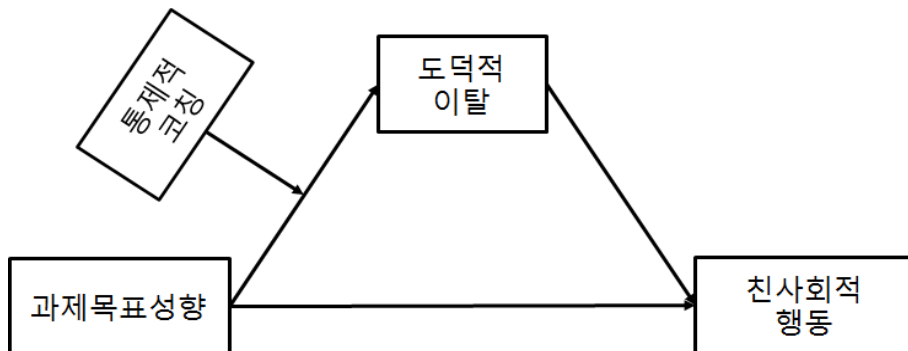


그림 10. 연구 모형 2

(3)연구모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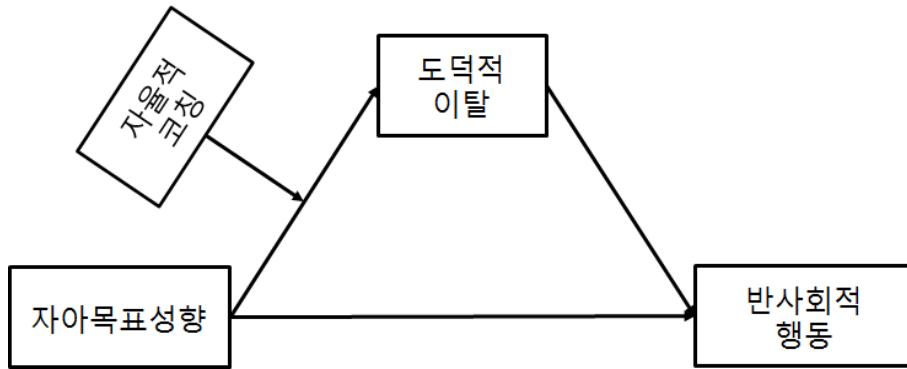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모형 3

(4)연구모형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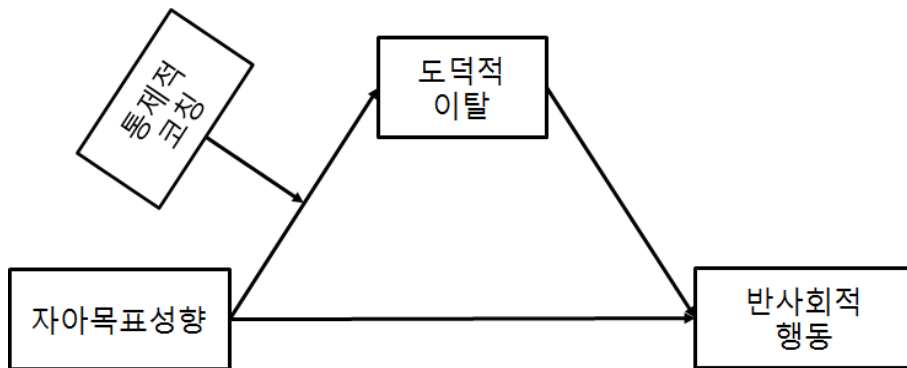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 모형 4

## 2.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연구 2의 대상자들은 2018년 대통령기 태권도대회에 참가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선수들로 총 268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집방식인 편의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였으며 검사지는 280부가 회수되었으나, 반응고정화 현상을 보이는 응답과 무 기입 되어있는 자료 12부를 제외한 268명의 자료만을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고등부 109명(40.7%), 대학부 111명(41.4%), 일반부 48명(17.9%) 총 26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측정도구

연구 2의 자료를 측정하기 위해 성취목표성향, 자기조절동기, 도덕적 이탈, 자율성지지 코칭, 통제적 코칭, 그리고 친사회적·반사회적 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추출하였고, 자료의 약 50%를 무작위로 선별하여(n=134)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chi^2$ 검증을 기본적으로 평가하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크기와는 비교적 독립적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나타내주는 RMSEA, IFI, TLI 및 CFI 등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적합도 지수들은 Q값이 3이하(kline, 2005), IFI, TLI, CFI와 같은 상대적 지수들의 값은 .90이상 되어야 양호하며, RMSEA값은 .05이하이면 매우 우수하고, .05~.08은 양호하며, .08~.10은 수용 가능하다는 준거를 갖고 평가하였다(홍세희, 2000; Hu & Bentler, 1999).

#### (1) 성취목표성향(Achievemen Goal Orientation)

성취목표성향 측정은 Duda & Nicholls(1992)가 개발한 TEOSQ(Task and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를 김병준(2001)이 한국어로 변안하여 표준화한 척도를 자구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과제목표성향 7문항, 자아목표성향 6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정말로 열심히 연습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13문항으로 구성된 2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875,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chi^2=1762.853$ ,  $df=78$ ,  $p<.000$ ).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과제목표성향 .91, 자아목표성향 .83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LI 값을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21.950$ ,  $df=59$ ,  $p<.000$ ,  $Q=2.067$ ,  $IFI=.921$ ,  $TLI=.893$ ,  $CFI=.919$ ,  $RMSEA=.090$ ).

### (2) 도덕적 이탈

도덕적 이탈의 측정은 Boardley와 Kavussanu(2007)가 개발한 스포츠 도덕적 이탈척도 MDSS(Moral Disengagement in Sport Scale)를 김선옥, 양명환(2017)이 국내의 스포츠상황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화 검증을 실시한 척도인 한국판 스포츠 도덕적 이탈 척도(KMD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요인(인지 재구조화, 책임축소화, 부정적 결과왜곡, 비인간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예로서 “상대에 대한 공격적 언어는 실제로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Likert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연구 1과 동일한 방법인 도덕적 이탈 합성점수(composite score)를 사용하였다.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1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952,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chi^2=4986.629$ ,  $df=120$ ,  $p<.000$ ).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97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RMSEA값을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262.378$ ,  $df=93$ ,  $p<.000$ ,  $Q=2.821$ ,  $IFI=.940$ ,  $TLI=.922$ ,  $CFI=.940$ ,  $RMSEA=.117$ ).

### (3) 자율성지지 코칭

자율성지지 코칭의 측정은 Williams와 Deci(1996)가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자구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요인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예로서 “나는 내 생각을 코치님에게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평정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1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917,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chi^2=1562.768$ ,  $df=28$ ,  $p<.000$ ).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RMSEA값을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56.479$ ,  $df=19$ ,  $p<.000$ ,  $Q=2.973$ ,  $IFI=.954$ ,  $TLI=.931$ ,  $CFI=.953$ ,  $RMSEA=.122$ ).

#### (4) 통제적 코칭

통제적 코칭의 측정은 Bartholomew 등(2010)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15문항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목적에 맞게 8문항 1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예로서 ‘나의 코치님은 내가 잘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주문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평정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1개의 문항을 제거하고 7문항으로 구성된 1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899,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chi^2=1070.324$ ,  $df=21$ ,  $p<.000$ ).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90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RMSEA 값을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35.107$ ,  $df=14$ ,  $p<.001$ ,  $Q=2.508$ ,  $IFI=.964$ ,  $TLI=.945$ ,  $CFI=.964$ ,  $RMSEA=.106$ ).

#### (5)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 측정은 Kavussanu와 Boardley(2009)가 개발한 친사회적·반사회적 스포츠행동척도(The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Sport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팀 동료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4문항, 팀 동료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 5문항, 상대선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3문항, 상대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 8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팀 동료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과 상대선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묶어 친사회적 행동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팀 동료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과 상대선수에 대한 반사회적 행동을 묶어 반사회적 행동 요인으로 구성하여 총 2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예로서 “나는 파울을 당하면 보복을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하지 않았다’(1점)에서 ‘매우 자주하였다’(5점)의 5점 Likert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Varimax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3문항에 제거되고 17문항으로 구성된 2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KMO 측도=.940, Bartlett의 구형성 점검, Approximate  $\chi^2=4679.556$ ,  $df=136$ ,  $p<.000$ ). Cronbach's Alpha 값으로 평가한 신뢰도 계수는 친사회적 행동 .89, 반사회적 행동 .97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250.605$ ,  $df=109$ ,  $p<.000$ ,  $Q=2.299$ ,  $IFI=.939$ ,  $TLI=.923$ ,  $CFI=.938$ ,  $RMSEA=.099$ ).

###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8년 대통령기 태권도 대회에 참가한 태권도 선수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선수들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각 학교 훈련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독 및 코치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검사지를 배부한 후 응답요령 등의 부차적인 설명과 성실한 응답을 해줄 것을 부탁한 뒤, 질문지 응답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특히 연구윤리에 따라서 응답참여 여부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참가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질문지를 완료하는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부된 질문지는 총 280부였으나 응답 고정화 현상을 보이는 자료와 50%이상 응답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68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자료분석

최종적으로 선정된 자료들은 SPSS 18.0과 SPSS PROCESS Macro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으며, 구성개념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Pearson's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성취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코칭유형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였다.

연구 2에서는 76개의 모형 중 7번째 모형을 적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무선표본(10,000개)을 만들어 매개효과 무선표본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며(Shrout & Bolger, 2002),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95%편의교정신뢰구간(bias-corrected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을 사용하였다.



### 3. 연구 결과

#### 1) 전체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분석 결과

회귀분석을 검증하기에 앞서 첫 번째 단계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전체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분포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변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왜도, 첨도를 통해서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표 7. 전체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분포 특성

측정변인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왜도	첨도
과제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					
도덕적 이탈					
자율성지지 코칭					
통제적 코칭					
친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각 변인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은 과제목표성향은 1.00~5.00점에서 평균값이 3.88, 표준편차는 .66으로 나타났으며, 자아목표성향은 1.00~5.00점에서 평균값이 3.25, 표준편차는 .70로 나타났다. 도덕적 이탈은 1.00~6.00점에서 평균값이 2.59, 표준편차는 1.27로 나타났고, 자율성지지 코칭은 1.00~5.00점에서 평균값이 3.89, 표준편차는 .71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적 코칭은 1.00~4.00점에서 평균값이 2.32, 표준편차는 .85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은 2.00~5.00점에서 평균값이 3.98, 표준편차는 .61로 나타났고, 반사회적 행동은 1.00~4.23점에서 평균값이 1.94, 표준편차는 .83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요인에서 왜도와 첨도 값이 절대 값 2와 7이상을 넘지 않음으로써 측정변인들의 점수 분포가 정규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8.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변인
과제목표성향
자아목표성향
도덕적 이탈
자율성지지 코칭
통제적 코칭
친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표 8>은 성취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자율성지지 코칭, 통제적 코칭, 친사회적 행동,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제목표성향은 자아목표성향, 자율성지지 코칭,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덕적 이탈과 통제적 코칭, 반사회적 행동에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목표성향은 도덕적 이탈, 통제적 코칭,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율성지지 코칭과 친사회적 행동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이탈은 통제적 코칭과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율성지지 코칭과 친사회적 행동과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지지 코칭은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적 코칭과 반사회적 행동과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적 코칭은 반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사회적 행동과는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은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이 적절한 수준의 상관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절된 매개분석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2) 과제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경로분석 및 매개효과 검증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을 도해한 결과는[그림 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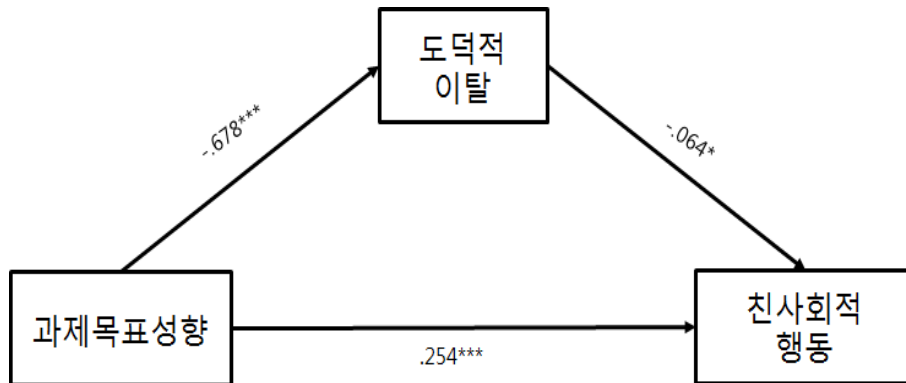


그림 13.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모형

독립변인 중 과제목표성향은 종속변인인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B=.254$ ,  $SE=.057$ ,  $t=4.4357$ ,  $p<.000$ )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도덕적 이탈에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678$ ,  $SE=.111$ ,  $t=-6.1178$ ,  $p<.000$ ). 도덕적 이탈이 종속변인인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도덕적 이탈은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64$ ,  $SE=.030$ ,  $t=-2.1429$ ,  $p<.033$ ).

또한 매개변수인 도덕적 이탈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독립변인인 과제목표성향이 종속변수인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의 합인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298$ ,  $SE=.054$ ,  $t=5.5043$ ,  $p<.000$ ).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표 9>와 같이 과제목표성향이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43이며, 95% 편의교정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0088~.0940)이 0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면서 연구가설 1-1은 지지되었다.

표 9. 과제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검증

변 수				
종속변인 도덕적 이탈				
상수항				
과제목표성향				
종속변인 친사회적 행동				
상수항				
도덕적 이탈				
과제목표성향				
예측변인	준거변인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과제목표성향	친사회적 행동			

### 3) 자아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경로분석 및 매개효과 검증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을 도해한 결과는[그림 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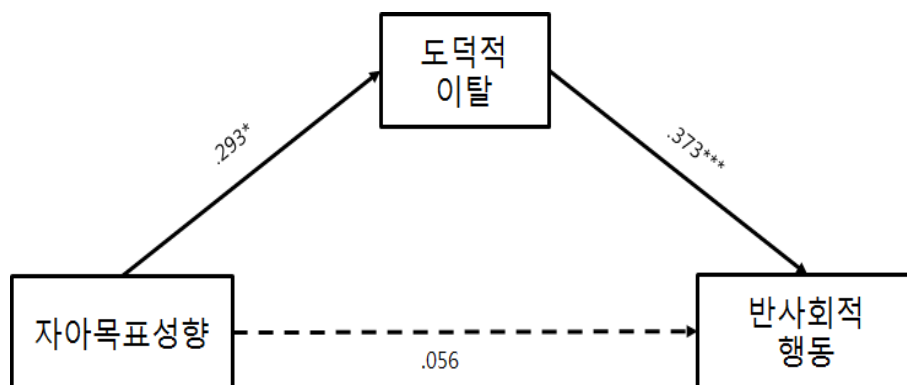


그림 14.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모형

독립변인 중 자아목표성향은 종속변인인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B=.056, SE=.061, t=.9303, p>.353$ )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인 매개변수 도덕적 이탈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293, SE=.110, t=2.6517, p<.009$ ). 세 번째 단계인 매개변수인 도덕적 이탈이 종속변인인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도덕적 이탈은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373, SE=.033, t=11.2427, p>.000$ ).

또한 매개변수인 도덕적 이탈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독립변인인 자아목표성향이 종속변수인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의 합인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166, SE=.073, t=2.2839, p<.023$ ).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도덕적 이탈에 대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자아목표성향이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09이며, 95% 편의교정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0333~.1894)이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구가설 2-1은 지지되었다.

표 10. 자아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검증

변 수				
종속변인 도덕적 이탈				
상수항				
자아목표성향				
종속변인 반사회적 행동				
상수항				
도덕적 이탈				
자아목표성향				
예측변인	준거변인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자아목표성향	반사회적 행동			

#### 4) 과제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매개모형에서 코칭유형의 조절효과 검증

(1) 과제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매개모형에서 자율성지지 코칭의 조절효과 검증

도덕적 이탈이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자율성지지 코칭에 의해서 조절되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먼저 매개변인 모형을 살펴보면, 과제목표성향은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율성지지 코칭도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제목표성향과 자율성지지 코칭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207)으로 나타나 조절효과의 유의성이 없기 때문에 연구가설 1-2는 기각되었다.

표 11.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에 대한 자율성지지 코칭의 조절효과 검증

	B	SE	Boot SE	t(p)	95% CI		95% BC CI	
					LLCI	ULCI	BootLLCI	BootULCI
매개변인모형 종속변인 도덕적 이탈								
상수항								
과제목표성향 독립변인								
자율성지지 코칭 조절변인								
과제목표성향 자율성지지 코칭								
종속변인모형 종속변인 친사회적 행동								
상수항								
도덕적 이탈 매개변인								
과제목표성향 예언변인								
자율성지지 코칭 수준에서 조건부 간접효과								
조절된 매개효과지수								

다음으로 조절된 매개효과, 즉 과제목표성향이 도덕적 이탈을 경유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과를 자율성지지 코칭의 세 가지 수준에 따라서 검토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조건부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는 <표 11>의 하단부에 있다. 자율성지지 코칭이 높아질수록 조건부 간접효과 크기가 .0428, .0336, .0243으로 감소되고 있다. 자율성지지 코칭이 높은 경우(+1SD)의 간접효과(.0243)와 평균일 경우의 간접효과(.0336), 낮은 경우(-1SD)의 간접효과(.0428)는 편의교정신뢰구간의 상한 값·하한값의 범위에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절변수인 자율성지지 코칭이 과제목표성향 → 도덕적 이탈 → 친사회적 행동의 간접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수량화한 값인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가  $-.0132$ 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95%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은  $-.0509 \sim .0032$ 이며,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어 조건부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5>는 조절된 매개 모형에 대한 통계모형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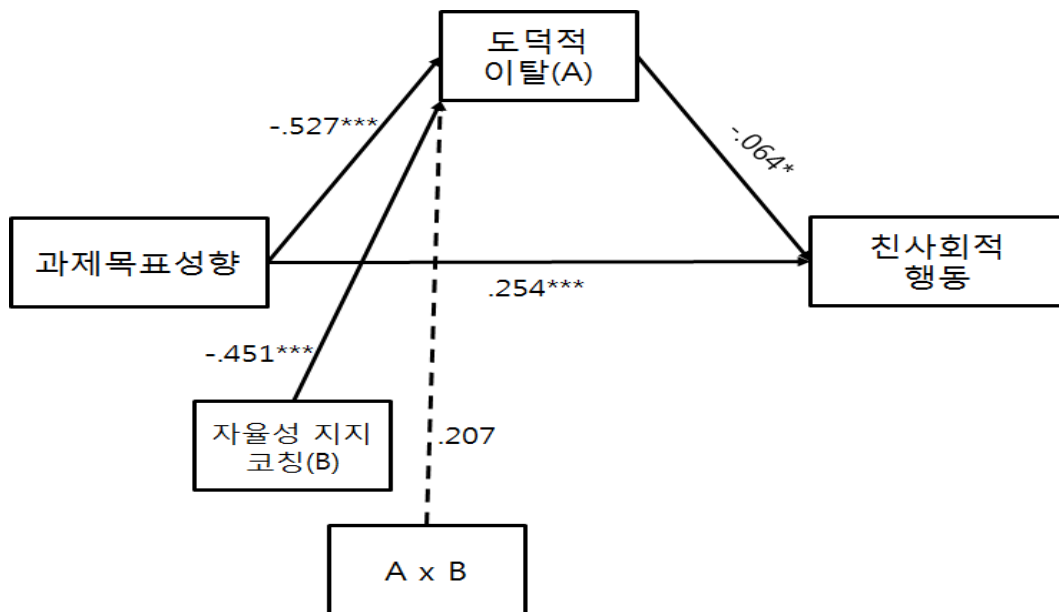


그림 15. 조절된 매개모형의 통계모형

(2) 과제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매개모형에서 통제적 코칭의 조절효과 검증

도덕적 이탈이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통제적 코칭에 의해서 조절되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도덕적 이탈을 경유한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제적 코칭의 조절효과 검증

	B	SE	Boot SE	t(p)	95% CI		95% BC CI	
					LLCI	ULCI	BootLLCI	BootULCI
<b>매개변인모형 종속변인 도덕적 이탈</b>								
상수항								
과제목표성향 독립변인								
통제적 코칭 조절변인								
과제목표성향 통제적 코칭								
<b>종속변인모형 종속변인 친사회적 행동</b>								
상수항								
도덕적 이탈 매개변인								
과제목표성향 예언변인								
<b>통제적 코칭 수준에서 조건부 간접효과</b>								
조절된 매개효과지수								

먼저 매개변인 모형을 살펴보면, 과제목표성향은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적 코칭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목표성향과 통제적 코칭의 상호작용 효과가 부(-)적으로 유의한 것(.463)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3은 지지되었다.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Interaction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절변인의 특정 조건값(평균값±1 표준편차)을 대입하여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프로 제시한 결과가<그림 16>이다.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SD(-.161,  $t=-5.786$ ,  $p<.001$ )와 평균값 조건(-.101,  $t=-5.345$ ,  $p<.001$ )인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SD조건에서의 단순기울기(-.109,  $t=-1.352$ ,  $p>.18$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적 코칭 수준이 높은 경우(+1SD)와 평균인 경우에만 기울기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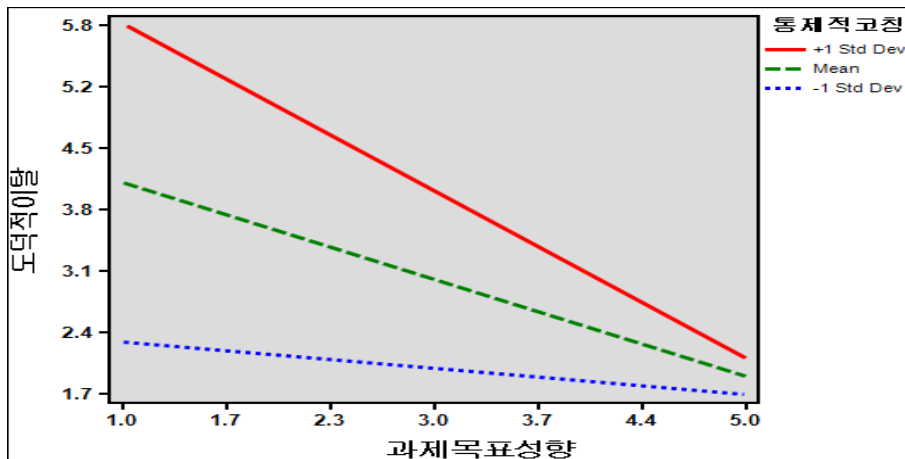


그림 16. 통계적 코칭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의 단순기울기 검증

다음으로 조절된 매개효과, 즉 과제목표성향이 도덕적 이탈을 경유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과를 통계적 코칭의 세 가지 수준에 따라서 검토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조건부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는 <표16>의 하단부에 있다. 통계적 코칭이 높아질수록 조건부 간접효과의 크기가 .0094, .0344, .0595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적 코칭이 높은 경우(+1SD)의 간접효과(.0595)와 평균일 경우의 간접효과(.0344), 낮은 경우(-1SD)의 간접효과(.0094)는 편의교정신뢰구간의 상한 값·하한값의 범위에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통계적 코칭이 과제목표성향 → 도덕적 이탈 → 친사회적 행동의 간접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수량화한 값인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는 .0295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95%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은 .0059~.0645이며,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기에 조건부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7>은 조절된 매개모형에 대한 통계모형을 나타낸다.

요약하면, 도덕적 이탈을 경유하여 과제목표성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 코칭의 조건에 따라서 도덕적 이탈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코칭의 통계적 코칭 수준이 높을 때와 중간 수준일 때 도덕적 이탈 수준이 더 높은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제목표성향과 통계적 코칭의 상호작용은 도덕적 이탈 수준 및 친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수준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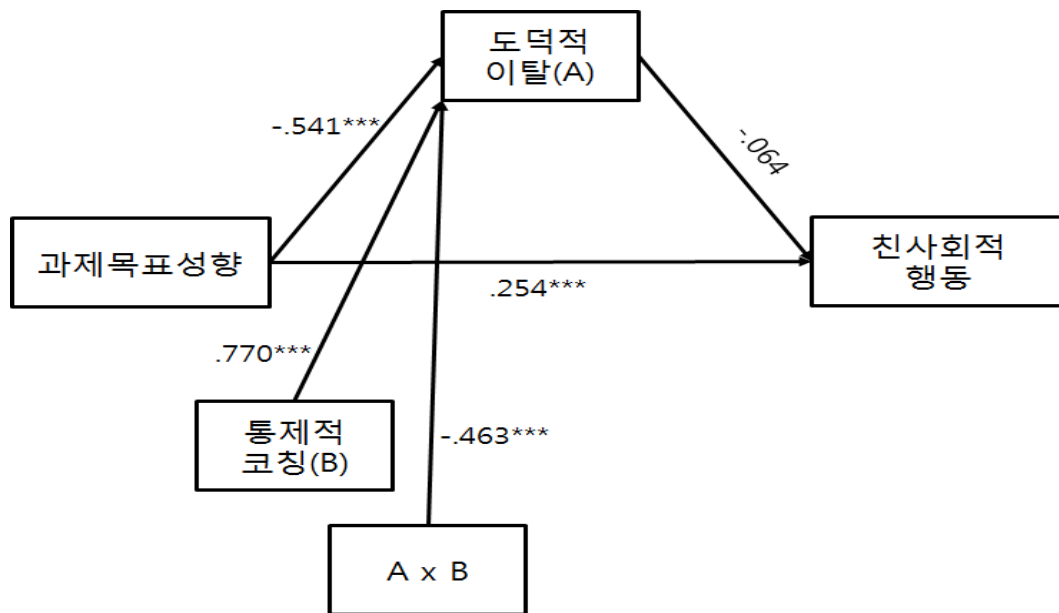


그림 17. 조절된 매개모형의 통계모형

### 5) 자아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매개모형에서 코칭유형의 조절효과 검증

(1) 자아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매개모형에서 자율성지지 코칭의 조절효과 검증

도덕적 이탈이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자율성지지 코칭에 의해서 조절되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먼저 매개변인 모형을 살펴보면, 자아목표성향은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율성지지 코칭도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아목표성향과 자율성지지 코칭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부(-)의 영향으로 나타나면서(-.264) 자율성지지 코칭에 의해 조절되면서 연구가설 2-2는 지지되었다.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Interaction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절변인의 특정 조건값(평균값±1 표준편차)을 대입하여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프로 제시한 결과가<그림 18>이다. <그림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 13. 도덕적 이탈을 경유한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매개효과에 대한 자율성지지 코칭의 조절효과 검증

	B	S.E	Boot S.E	t(p)	95% CI		95% BC CI	
					LLCI	ULCI	BootLLCI	BootULCI
매개변인모형 종속변인 도덕적 이탈								
상수항								
자아목표성향 독립변인								
자율성지지 코칭 조절변인								
자아성향 자율성지지 코칭								
종속변인모형 종속변인 반사회적 행동								
상수항								
도덕적 이탈 매개변인								
자아목표성향 예언변인								
자율성지지 코칭 수준에서 조건부 간접효과								
조절된 매개효과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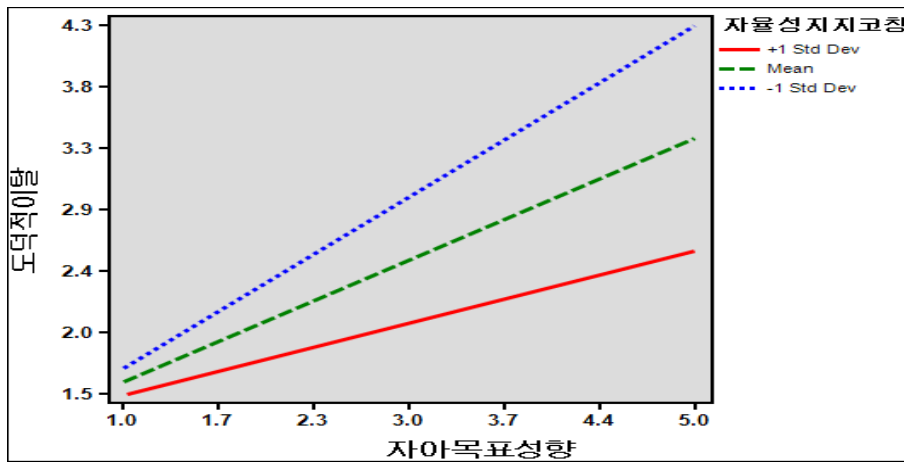


그림 18. 자율성지지 코칭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의 단순기울기 검증

+1SD(.115,  $t=2.339$ ,  $p<.05$ )과 평균값 조건(.115,  $t=3.949$ ,  $p<.001$ )과 -1SD조건에서의 단순기울기(.190,  $t=3.383$ ,  $p<.001$ )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목표성향을 가진 선수들에게 자율성지지 코칭을 지지받는다면 모두 도덕적 이탈 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평균인 경우와 낮은 수준(-1SD)일 때 도덕적 이탈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조절된 매개효과, 즉 자아목표성향이 도덕적 이탈을 경유하여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과를 자율성지지 코칭의 세 가지 수준에 따라서 검토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조건부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는 <표 13>의 하단부에 있다. 자율성지지 코칭이 높아질수록 조건부 간접효과의 크기가 .2390, .1698, .1005로 감소되고 있다. 자율성지지 코칭이 높은 경우(+1SD)의 간접효과(.1005)와 평균일 경우의 간접효과(.1698), 낮은 경우(-1SD)의 간접효과(.2390)는 편의교정신뢰구간의 상한 값·하한 값의 범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자율성지지 코칭이 자아목표성향 → 도덕적 이탈 → 반사회적 행동의 간접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수량화한 값인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는 -.0983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95%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은 -.1992~-0.0112이며,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조건부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9>는 조절된 매개모형에 대한 통계모형을 나타낸다.

요약하면, 도덕적 이탈을 경유하여 자아목표성향이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자율성지지 코칭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코칭의 자율성지지 코칭의 수준이 높을 때 보다 중간수준 일 때, 중간 수준 보다는 낮은 수준의 자율성지지 코칭을 할 때 도덕적 이탈 수준이 더 높은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목표성향과 자율성지지 코칭의 상호작용은 도덕적 이탈 수준 및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수준을 조절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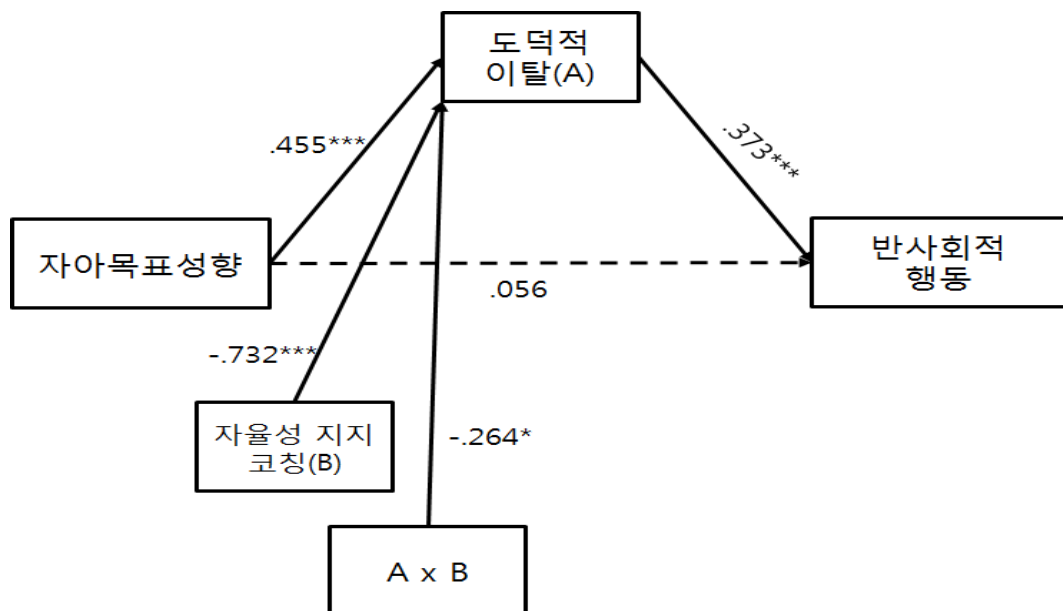


그림 19. 조절된 매개모형의 통계모형

(2) 자아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매개모형에서 통제적 코칭의 조절효과 검증

도덕적 이탈이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통제적 코칭에 의해서 조절되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먼저 매개변인 모형을 살펴보면, 자아목표성향은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적 코칭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목표성향과 통제적 코칭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143)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3은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조절된 매개효과, 즉 자아목표성향이 도덕적 이탈을 경유하여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과를 통제적 코칭의 세 가지 수준에 따라서 검토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조건부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는 <표 14>의 하단부에 있다. 통제적 코칭이 높아질수록 조건부 간접효과의 크기가 .0135, .0588, .1042로 증가하고 있다. 통제적 코칭이 높은 경우(+1SD)의 간접효과(.1042)와 평균일 경우의 간접효과(.0588), 낮은 경우(-1SD)의 간접효과(.0135)는 편의교정신뢰구간의 상한 값·하한값의 범위에 0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통제적 코칭

표 14. 도덕적 이탈을 경유한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제적 코칭의 조절효과 검증

	B	S.E	Boot S.E	t(p)	95% CI		95% BC CI	
					LLCI	ULCI	BootLLCI	BootULCI
<b>매개변인모형 종속변인 도덕적 이탈</b>								
상수항								
자아목표성향 독립변인								
통제적 코칭 조절변인								
자아목표성향 통제적 코칭								
<b>종속변인모형 종속변인 반사회적 행동</b>								
상수항								
도덕적 이탈 매개변인								
자아목표성향 예언변인								
<b>통제적 코칭 수준에서 조건부 간접효과</b>								
조절된 매개효과지수								

이 자아목표성향 → 도덕적 이탈 → 반사회적 행동의 간접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수량화한 값인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는 .0534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95%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은 -.0356~.1482이며,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있어 조건부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0>은 조절된 매개모형에 대한 통계모형을 나타낸다.

요약하면, 도덕적 이탈을 경유하여 자아목표성향이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제적 코칭의 조건에 따라서 지지 수준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차이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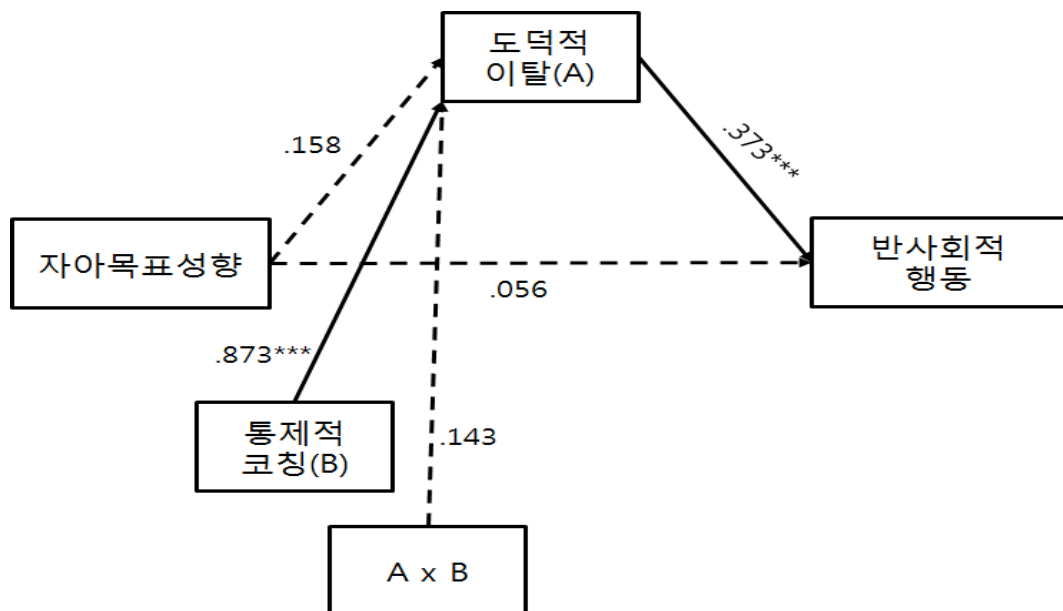


그림 20. 조절된 매개모형의 통계모형

#### 4. 논의

연구 2의 목적은 태권도선수 268명을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이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여부를 재확인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사회·환경적 변인인 코칭유형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과제목표성향 및 도덕적 이탈,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성지지 코칭과 통제적 코칭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자아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성지지 코칭과 통제적 코칭이 조절변인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목표성향은 자아목표성향과 자율성지지 코칭, 친사회적 행동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도덕적 이탈과 통제적 코칭, 반사회적 행동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이러한 결과는 연구 1에서 나타난 상관관계와 일치하고 있다. 특히 과제목표성향이 자율성지지 코칭이나 친사회적 행동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박중길, 2009; Kavussanu, 2006; Sage & Kavussanu, 2007)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과제목표성향이 높은 도덕성 수준을 보이고 친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자아목표성향은 도덕적 이탈과 통제적 코칭, 반사회적 행동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선행연구들(김선욱, 양명환, 2013; Boardley & Kavussanu, 2010)과 일치하고 있다. 즉 자아목표성향을 가진 선수들은 낮은 도덕성 수준과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며, 특히 코치의 통제적 코칭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매개분석 결과, 과제목표성향은 친사회적 행동에 정(+)의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정(+)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친 총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age와 Kavussanu(2007)의 청소년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제목표성향이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과제목표성향을 지닌 선수들일수록 도덕성 수준이 높고 친사회적 행동에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아목표성향은 반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목표성향이 도덕적 이탈과 반사회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도덕적 이탈이 이들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국내의 연구(김선욱, 양명환, 2013)와 국외의 연구

(Boardley & Kavussanu, 2010)와 일치한 결과를 나타낸다.

성취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및 친사회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매개효과가 지도자의 코칭유형인 자율성지지 코칭과 통제적 코칭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과제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율성지지 코칭은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통제적 코칭은 조절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덕적 이탈을 경유하여 과제목표성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제적 코칭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칭의 통제적 코칭 수준이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선수들의 과제목표성향이 높을 때에는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과제목표성향이 낮을 경우에는 통제적 코칭에 의해 큰 차이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과제목표성향이 낮고 통제적 코칭수준이 높을수록 선수들의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아지면서 친사회적 행동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두 번째로,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는 자율성지지 코칭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자율성지지 코칭 수준이 높으면 도덕적 이탈 수준이 낮아지고, 자율성지지 코칭 수준이 낮으면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선수들의 자아목표성향이 낮고 자율성지지 코칭 수준이 높으면 도덕적 이탈 수준이 낮아지고, 자아목표성향이 높고 자율성지지 코칭 수준이 낮을 경우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자아목표성향이 높은 선수들에게는 자율성지지 코칭을 통해 도덕적 이탈 수준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이다.

한편, 통제적 코칭은 자아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반사회적 행동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작용되고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국내의 선행연구(김선옥, 2015; 김선옥, 양명환, 2013)를 토대로 자아목표성향을 가진 선수들이 도덕적 이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통제적 코칭도 도덕적 이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통제적 코칭 수준과 도덕적 이탈의 상호작용 효과는 도덕적 이탈 수준을 증가시키는 조절요인으로 작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추후 다른 표본을 통하여 재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스포츠분야, 특히 이 분야에서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고 관련 선행 문헌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론과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도덕적 이탈과 사회적 행동(친사회적,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 코칭행동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등의 간접적인 증거를 통하여 코칭유형의 중요성과 인과성을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선수들의 자율성지지 코칭이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제적 코칭이 도덕적 이탈과 반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김선욱 등(2016)의 연구와 코치와 부모의 지지에 의해 선수들이 느끼는 동기분위기 즉 숙달분위기가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고, 수행분위기가 도덕적 이탈과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김선욱, 2015; Boardley & Kavussanu, 2010)를 통해 자율성지지 코칭이 높은 도덕성과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며, 반사회적 행동을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통제적 코칭이 낮은 도덕성 수준과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볼 때, 본 연구의 코칭유형의 매개된 조절효과의 인과성은 간접적으로 지지되었다고 본다.

요약하면, 선행연구들은 단순 매개모형이나 다중매개모형으로 성취목표성향과 코칭유형, 도덕적 이탈,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검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취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의 매개모형을 검증한 후, 이 매개모형을 사회·환경 변인인 코칭유형이 조건부 조절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검증한 결과, 성취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도덕적 이탈의 중재효과를 코치의 코칭유형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도덕성 수준을 높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줄이며 친사회적 행동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VII. 종합논의

스포츠 환경에서는 상대방과의 경쟁을 통해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승리 지상주의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시합에 참여하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등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승리를 위해서 반칙행위를 하거나 심판판정에 승복하지 않은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선수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과거에서는 반사회적 행동이 상대선수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었지만, 최근에는 팀 동료선수들에게도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선욱, 2015).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되는 원인이나 사회적 행동의 예측요인,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개인속성변인과 사회·환경 변인들이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선욱, 2015; 김선욱, 양명환, 2013, 2018; Hodge & Lonsdale, 2011; Kavussanu et al., 2006)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연구 대부분이 횡단적인 단순매개분석 방법으로 이들의 관계를 검증하였고, 매개분석과 조절분석을 통합한 분석기법인 조건부 과정모델링, 또는 조건부 과정분석을 적용한 연구는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인 다중매개분석 방법을 통해 개인속성변인들과 관계변인이 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 1을 구성하였고, 매개효과 모형에서 선수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코치의 코칭유형이 매개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2를 실시하였다.

연구 1에서는 성취목표성향과 자기조절동기, 도덕적 이탈,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적 동기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덕적 이탈은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목표성향은 반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통제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을 통해서만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는 통제적 동기나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을 때에만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아목표성향이 반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원인은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의 차이, 우리나라와 외국의 스포츠참여 인식,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은 예를 중시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사회적 선회도(social

desirability) 효과로 발생된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개인종목은 자신의 행동을 모든 사람들이 관찰하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체종목일 경우 자신의 행동이 팀 동료에 의해 가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에 따라서는 올바른 행동으로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에 행동과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은 추후 연구를 통해 재검증하고 재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1에서의 도출해낸 의미 있는 결과인 성취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자기조절동기가 매개변인으로 작용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특히 도덕적 이탈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는 점은 앞서 지적한 단순매개효과와 다중매개효과 적용에 따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선행연구들과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재검증되어야 할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성취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를 재검증하고, 이 매개효과를 코칭유형 즉, 코치의 자율성지지 코칭유형과 통제적 코칭유형에 따라 매개변인인 도덕적 이탈이 어떻게 조절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았다. 연구 결과,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유의한 매개효과를 통제적 코칭유형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의 유의한 매개효과도 자율성지지 코칭유형 수준에 따라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은 조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스포츠현장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목표성향을 가진 선수들에게 통제적 코칭을 지지할 경우 반사회적 행동에 관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통제적 코칭을 지지하기 보다는 선수들의 성향을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자아목표성향을 가진 선수들에게 자율성지지 코칭유형이 지지된다면 반사회적 행동이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스포츠상황에서 도덕적 이탈과 반사회적 행동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원인을 모색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자율성지지 코칭유형을 통해 반사회적 행동이 감소된다면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성향이나 참여하는 이유 등 개인적 성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선수만족 등 결과적으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최고의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 나타나는 성취목표성향과 자기조절동기, 도덕적 이탈 및 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이해함으로써 경쟁적인 스포츠 현장에서 표출되는 선수들의 친사

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예측요인을 도출하는데 기여하였고, 특히 코치의 코칭방식이 긍정적인 행동 변화유도 및 긍정적인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낸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엘리트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목표의 방향과 긍정적인 동기유발을 제공해줌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에 관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스포츠 현장에서의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표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설계 및 결과, 그리고 논의 과정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과 추후 연구 과제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을 특정 종목의 선수들로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단체종목이나 개인종목, 구기종목이나 투기종목 등 스포츠를 대표하거나 참여하는 선수들을 대표하는 일반화된 결과라고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다른 종목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재현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선수들의 개인 속성변인을 성취목표성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덕적 이탈이나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선수들의 개인속성변인인 경쟁지향성이나 열정, 사회·환경적인 요인인 동기분위기 등 여러 요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변인을 통해 검증하거나, 연구 설계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도덕적 이탈이나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거나 조절 또는 매개할 수 있는 요인을 밝혀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 1과 2의 설계 모두 횡단적 설계에 의한 조사연구이기 때문에 변인간의 인과성에 대한 설명이나 주장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중매개효과 검증이나 조절된 매개효과 기법 등을 활용하였지만 변인들 간의 인과성 추론에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기법이나 실험법을 적용한 실험설계를 통하여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VIII.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기조절동기와 도덕적 이탈의 순차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더 나아가 이 매개효과 모형을 사회·환경 변인인 코칭유형이 조건부로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1**은 2018년 평화기태권도 대회 및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 참가한 고등부, 대학부 및 일반부 태권도선수 255명을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 자기조절동기, 도덕적 이탈,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방법을 이용하여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취목표성향 중 과제목표성향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율적 동기는 유의한 정(+)의 간접효과가 있었지만,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는 없었다. 또한 자아목표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는 통제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의 유의한 정(+)의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과제목표성향은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율적 동기를 통한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목표성향은 반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통제적 동기와 도덕적 이탈을 경유하여야만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는 2018년 대통령기 태권도 대회에 참가한 고등부, 대학부 및 일반부선수 268명을 대상으로 성취목표성향, 도덕적 이탈, 코칭유형,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방법을 이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제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는 자율성지지 코칭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통제적 코칭을 통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목표성향과 도덕적 이탈, 반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는 자율성지지 코칭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제적 코칭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 → 자기조절동기 → 도덕적 이탈 →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매개효과를 도출함으로써 도덕적 행동 예측요인을 입증하는데 기여하였다. 더 나아가 도덕적 이탈과 도덕적 행동을 사회·환경 변인인 코칭유형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도덕적 행동 문헌의 외연을 확대하였다고 평가한다.

## 참고문헌

- 강종구(2010). 학원 축구 지도자의 변혁적 리더십, 신뢰성 및 팀 성과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49(1), 37-46.
- 고용주, 김영미(2003). 스포츠사회학: 탁구선수들이 지각한 지도자 행동유형과 선수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42(4), 171-181.
- 곽금주 (1998). 자기효능감과 도덕적이탈(I): 연령에 따른 변화. **한국심리학회: 발달**, 11(1), 1-11.
- 김경연, 하영희(2003). 죄책감, 도덕적 이탈, 및 친구의 규칙위반성향과 청소년의 규칙위반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2), 39-52.
- 김광기(2001). 스포츠이탈의 원인 및 유형의 이론체계. **체육연구**, 15, 97-114.
- 김규동(2011). **골프선수 부모와 지도자의 자율성 지지가 기본적심리욕구 만족과 자기관리에 미치는 인과모형 검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김기형, 박중길(2009). 대학 운동선수의 지각된 자율성 지지와 기본욕구 및 동기적 성향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3), 33-48.
- 김덕진(2010). **스포츠 상황에서 심리적 욕구만족척도 개발과 자기결정이론의 모형 검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김미량, 김병태(2010). 태권도 선수가 지각하는 코치의 자율성 지지와 정신력의 관계에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 검증. **대한무도학회지**, 12(1), 147-157.
- 김병준(2001). 목표성향으로 예측한 스포츠재미와 스트레스.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2(1), 125-140.
- 김선욱(2015). **운동선수들의 동기분위기가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선욱, 양명환(2013). 태권도와 축구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이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2(1), 163-174.
- 김선욱, 양명환(2017). 한국관 스포츠 도덕적 이탈 척도의 타당화 검증. **대한무도학회지**, 19(2), 17-34.
- 김선욱, 양명환(2018). 태권도 선수들의 경쟁지향성이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에

-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57(2), 49-62.
- 김선욱, 오영택, 부남철, 양명환(2016). 코칭 방식이 태권도 선수들의 친사회적,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이탈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대한무도학회지**, 18(2), 41-62.
- 김선욱, 오영택, 양명환(2018). 태권도 선수들의 자기조절동기가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검증. **해양스포츠연구**, 8(1).
- 김선정(2014).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과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행동 간의 관계: 지각된 학급규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순식(1996).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 효능감, 불안 및 운동수행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아영(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유형 분류체계의 타당성. **교육심리연구**, 16(4), 169-187.
- 김영갑, 박용우, 김동규(2006). 인문, 사회과학편: 대학생이 평가한 대학운동부의 이미지 찾기.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45(1), 291-301.
- 김태련, 이경숙(1992). 반사회적 아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아·청소년정신의학**. 3(1): 14-25.
- 김형일(2013). **감성적 리더십이 사이클 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선수만족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 노승현(2011). **대학생의 도덕적 이탈 및 자아정체감이 사이버 일탈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민원(2007). **태권도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이 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병기, 이종욱, & 홍승표. (2005). 자기결정성이론이 제안한 학습동기 분류형태의 재구성. **교육심리연구**, 19(3), 699-717.
- 박병훈(2011).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코치-선수관계와 자기조절동기 및 운동만족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0(6), 197-210.
- 박영신, 김의철(2001a). 청소년 학교폭력행동과 환경 및 심리특성의 관계: 위탁청소년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5(2), 25-52.
- 박영신, 김의철(2001b).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

- 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63-8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2006).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심리특성 비교: 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가출,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2), 45-76.
- 박정근(2001). 우수 코치들의 리더십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2(1), 79-107.
- 박중길(2009). 지각된 코치-선수 관계, 욕구만족, 신체적 및 심리적 안녕감: 개인내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4), 177-191.
- 박중길, 김기형(2013). 지각된 코칭행동, 자율적-통제적 행동저절 및 정서의 인과구조: 자기결정이론의 관점. **한국체육학회지**, 52(2), 263-277.
- 성창훈(1999). 스포츠심리학: 청소년 운동선수의 지각된 코칭행동과 스포츠 경험지각 및 내적동기 요소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38(3), 244-259.
- 성창훈, 홍준희, 최은규(2004). 소년 스포츠 코치들이 지각하는 긍정적 코칭의 구성요소 및 장애요인.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5(4), 151-167.
- 소영호(2016).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코치-선수관계와 운동열정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5(5), 105-115.
- 손월일, 김성문(2013). 통제적 코칭행동에 따른 대학운동선수의 스포츠대처의 교육적 의미와 운동지속수행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2), 177-190.
- 손현섭(2000). 모델링이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송용관, 천승현(2012). 통제적 코칭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3(1), 111-123.
- 송용관, 천승현, 장윤정, 김보람(2016). 통제적 코칭행동이 운동선수들의 심리적 욕구, 소진과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1(1), 69-88.
- 양명환(2011).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자기조절동기가 자신감 지각에 미치는 효과. **해양스포츠연구**, 1(1), 1-19.
- 양명환(2015). 자율성지지 코칭행동, 자기조절동기, 의도적 연습 및 운동만족의 관계. **코칭능력개발지** 17(3), 77-91.



- 양명환. (2004). 자기결정 이론에 근거한 레저스포츠 동기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9(2), 107-132.
- 오영진(2010). 청소년기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계적 변화와 유형화 예측변인.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오영택(2013). 운동선수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운동탈진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영택, 김선옥, 인소정, 양명환(2016). 운동열정과 운동선수 탈진 간의 관계: 자기조절동기의 매개효과. **한국체육학회지**, 55(4), 159-174.
- 오영택, 양명환(2016). 태권도 선수의 운동 열정과 운동의존성 간의 관계: 자기조절 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55(6). 169-184.
- 오영택, 양명환(2018). 태권도 선수들의 열정과 의도적 연습간의 관계에서 코칭유형의 매개효과 검증. **국기원태권도연구**, 9(3), 23-39.
- 유승원. (2006). 골프지도자의 지도유형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 내적동기 및 지도효율성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유진, 박성준(1995). 스포츠 성취목표 지향성 이론의 현장 실험적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33, 14-27.
- 윤혜성, 임태희, 장창용(2017). 초· 중 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스포츠 도덕행동의 인과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8(3), 61-70.
- 이양희, 민수현, (2001). 반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 개발 연구. **미래유아학회지**, 8(1).
- 이재호(2006). 배드민턴 선수와 동호인의 유능감, 성취목표성향과 참여동기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주일(2001). 조직에서의 정서: 리더와 구성원간의 신뢰와 불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1), 91-128.
- 이지연(2016). 청소년기 친사회적·반사회적 행동의 발달계적과 학교 영역 예측요인.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번장(2000). 스포츠사회학개론. 서울: 동화문화사.
- 임선영, 이연수(2013). 전문무용수의 자기결정성동기가 심리적 중재요인 및 공연참여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30(1), 69-89.
- 임지현(2004). 지각된 자율성 지지 정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동기 및 학업적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지혜(2004). 대학 농구 팀 수행성적에 따른 코치의 지도 행동 유형과 집단 응집력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5(1), 65-77.
- 조경민(2012).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스트레스가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주민하, 임성문(2017). 도덕적 이탈과 사이버불링의 관계: 부모감독과 또래압력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4, 1-20.
- 최마리, 김병준(2008). 배드민턴 선수와 지도자 행동일치로 예측한 내적동기 및 자기 효능감.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2), 169-184.
- 최완욱(2012). *골프 지도자의 지도 유형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이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최의창(2012). 전인적 선수 발달과 인문적 코칭: 교육활동으로서 스포츠 코칭의 목적과 방법 재개념화.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2), 1-25.
- 한이석(2004). 스포츠 일탈. *형설 출판사*.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Akers, R. L. (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NA: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Ames, C. (1984). Achievement attributions and self-instructions under competitive and individualistic goal structur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3), 478.
- Ames, C. (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 261-271.
- Amorose, A. J., & Anderson-Butcher, D. (2007). Autonomy-supportive coaching and self-determined motivation in high school and college athletes: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8(5), 654-670.
- Amorose, A. J., & Horn, T. S. (2000). Intrinsic Motivation: Relationships with Collegiate Athletes' Gender, Scholarship Status, and perceptions of their coaches.

- Assor, A., Roth, G., & Deci, E. L. (2004). The emotional costs of parents' conditional regard: A Self-Determination Theory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72*(1), 47–88.
- Bandura, A. (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moral thought and action. In W. M. Kurtines & J. L. Gewirtz(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Vol. 1*, 71–129. Hillsdale, NJ: Erlbaum.
- Bandura, A., Barbar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364–374.
- Barkoukis, V., Lazuras, L., Tsorbatzoudis, H., & Rodafinos, A. (2011). Motivational and sportpersonship profiles of elite athletes in relation to doping behavior.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20*5–212.
- Bartholomew, K. J., Ntoumanis, N., & Thøgersen–Ntoumanis, C.(2009).A review of controlling motivational strategies from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Implications for sport coaches.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 215–233.
- Bartholomew, K. J., Ntoumanis, N., Ryan, R. M., Bosch, J. A., & Thøgersen–Ntoumani, C. (2011).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diminished functioning: The role of interpersonal control and psychological need thwart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11), 1459–1473.
- Bartholomew, K., Ntoumanis, N., & Thøgersen–Ntoumani, C. (2010). The controlling interpersonal style in a coaching context: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sychometric scal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2*, 193–21.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
- Black, A. E., & Deci, E. L. (2000). The effects of instructors' autonomy support and students' autonomous motivation on learning organic chemistry: A self-

- 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Science education*, 84(6), 740–756.
- Blanchard, C. M., Amiot, C. E., Perreault, S., Vallerand, R. J., & Provencher, P. (2009). Cohesiveness, coach's interpersonal style and psychological needs: Their effects on self-determination and athletes'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0(5), 545–551.
- Boardley, I. D., & Kavussanu, M. (200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oral Disengagement in Sport Scale.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29, 608–628.
- Boardley, I. D., & Kavussanu, M. (2010). Effects of goal orientation and perceived value of toughness on antisocial behavior in soccer: The mediating role of moral disengagement.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32, 176–192.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Caprara, G. V., & Capanna, C. (2005). Moral civic desengagement and value. *Ricerche di Psicologia*, 28, 67–84.
- Chung, I. J., Hill, K. G., Hawkins, J. D., Gilchrist, L. D., & Nagin, D. S. (2002). Childhood predictors of offense trajector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9(1), 60–90.
- Cresswell, S. L., & Eklund, R. C. (2005). Motivation and burnout in professional rugby player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6(3), 370–376.
- Deci, E. L., & Ryan, R. M. (1980). Self-determination theory: When mind mediates behavior. *The Journal of mind and Behavior*, 33–43.
- Deci, E. L., & Ryan, R. M.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109–134.
- Deci, E. L., & Ryan, R. M.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Deci, E. L., & Ryan, R. M. (2002). *Self-Determination Research: Reflections and*

- Future Direction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431.
- Deci, E. L., & Ryan, R. M. (2008). Facilitating optimal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ross life's domains. *Canadian Psychology, 49*(1), 14-23.
- Deci, E. L., Koestner, R., & Ryan, R. M. (1999). A meta-analytic review of experiments examining the effects of extrinsic rewards on intrinsic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5*(6), 627.
- Donahue, E. G., Miquelon, P., Valois, P., Goulet, C., Buist, A., & Vallerand, R. J. (2006). A motivational model of performance-enhancing substance use in elite athlete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8*(4), 511-520.
- Donahue, N. M., Robinson, A. L., Stanier, C. O., & Pandis, S. N. (2006). Coupled partitioning, dilution, and chemical aging of semivolatile organics.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40*(8), 2635-2643.
- Duda, J. L. (1993). A Goal perspective theory of meaning & motivation in sport. *Paper presented at the 8th word congress in sport psychology*, lisbon.
- Duda, J. L., & Nicholls, J. G. (1992). Dimensions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schoolwork and spor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3), 290.
- Duda, J. L., Chi, L., Newton, M. L., & Walling, M. D. (1995). Task and ego orienta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in s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 Duda, J. L., Olson, L. K., & Templin, T. J. (1991). The relationship of task and ego orientation to sportsmanship attitudes and the perceived legitimacy of injurious act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62*(1), 79-87.
- Dunn, J. G. H., & Dunn, J. C. (1999). Goal orientations, perceptions of aggression, and sportspersonship in elite male youth ice hockey players. *The Sport Psychologist, 13*, 183-200.
-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91.
- Eisenberg, N., & Mussen, P. H. (1989). The root of pro social behavior in childr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Fabes R. A., & Spinrad T.L. (2006). Prosocial development. In: Eisenberg N, Damon W, editor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ition Wiley; *New York, Vol. 3*, 646–718.
- Eisenberg, N., Fabes R. A., & Spinrad T.L. (2006). Prosocial development. In: Eisenberg N, Damon W, editor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ition Wiley; New York, Vol. 3*, pp. 646–718.
- Elliot, A. J. (1999). Approach and avoidance motivation and achievement goals. *Educational psychologist*, *34*(3), 169–189.
- Elliott, E. S., & Dweck, C. S. (1988). Goals: An approach to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1), 5.
- Fortier, M. S., Vallerand, R. J., & Guay, F. (1995). Academic motivation and school performance: Toward a structural model.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0*(3), 257–274.
- Funk, C. D., Shields, D. L., & Bredemeier, B. L. (2016). Contesting orientations, self-determined motivation, and sportspersonship: Further validation of the contesting orientations scal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27*, 66–77.
- Gagne´ , M., Ryan, R. M., & Bargmann, K. (2003). Autonomy support and need satisfaction in the motivation and wellbeing of gymnast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5*, 372–389.
- Goudas, M., Biddle, S., & Fox, K. (1994).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and intrinsic motivation in physical fitness testing with children. *Pediatric Exercise Science*, *6*(2), 159–167.
- Grolnick, W. S., & Ryan, R. M. (1987). Autonomy in children's learning: an experimental and individual difference investig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5), 890.
- Grolnick, W. S., & Ryan, R. M. (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 81(2), 143.
- Guay, F., Vallerand, R. J., & Blanchard, C. (2000). On the assessment of situational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The Situational Motivation Scale (SIMS). *Motivation and emotion, 24*(3), 175–213.
- Heyman, G. D., & Dweck, C. S. (1992). Achievement goals and intrinsic motivation: Their relation and their role in adaptive motivation. *Motivation and emotion, 16*(3), 231–247.
- Hodge, K., & Gucciardi, D. F. (2015). Antisocial and prosocial behavior in sport: The role of motivational climate,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moral disengagement.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7*(3), 257–273.
- Hodge, K., & Lonsdale, C. (2011).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sport: The role of coaching style, autonomous vs. controlled motivation, and moral disengagement.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3*(4), 527–547.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280–287.
- Kavussanu, M. (2006). Motivational predictors of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ur in football. *Journal of Sport Sciences, 24*, 575–588.
- Kavussanu, M., & Boardley, I.D. (2009). The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Sport Scale.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31*, 97–117.
- Kavussanu, M., & Roberts, G. C. (2001). Moral functioning in sport: An achievement goal perspective.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23*, 37–54.
- Kavussanu, M., Seal, A. R., & Phillips. D. R. (2006). Observed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s in male soccer teams: Age differences across adolescence and the role of motivational variable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8*, 1–19.

- Kleiber, D. A., & Roberts, G. C. (1981) The effects of sport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character: A preliminary investigation. *Journal of Sports & Exercise Psychology*, 3, 114–122.
- Kohn, A. (1986). No contest: The case against competition. Boston: Boughton Mifflin.
- Kowal, J., & Fortier, M. S. (2000). Testing relationships from the 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using flow as a motivational consequence.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1(2), 171–181.
- Loeber, R. (1988). Natural histories of conduct problems, delinquency, and associated substance use. *In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pp. 73–124. Springer, Boston, MA.
- Loeber, R., and Dishion, T. (1983). Early predictors of male delinquenc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4, 69–69.
- Long, T., Pantaleon, N., Bruant G., & d'Arripe–Longueville, F. (2006). A qualitative study of moral reasoning of young elite athletes. *The Sport Psychologist*, 20, 330–347.
- Maehr, M. L., & Nicholls, J. G. (1980). Culture and achievement motivation: A second look. In N. Warren (Ed.), *Studie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2)*, pp. 221–267. New York: Academic Press.
- Mageau, G. A., & Vallerand, R. J. (2003).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A motivational model. *Journal of sports science*, 21(11), 883–904.
- Martens, R. (1987). Coaches guide to sport psychology: A publication for the American Coaching Effectiveness Program: Level 2 sport science curriculum. Human Kinetics Books.
- Martens, R., Vealey, R. S., & Burton, D. (1990). Competitive anxiety in sport. Human kinetics.
- McAlister, A. L. (2001) “Moral Disengagement: Measurement and Modifica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38, 87–99.
- McAlister, A. L., Bandura, A., & Owen, S. V. (2006). Mechanisms of moral



- disengagement in support of military force: The impact of Sept. 11.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2), 141–165.
- McCarthy, E. D., Langner, T. S., Gersten, J. C., Eisenberg, J. G., & Orzeck, L. (1975). Violence and behavior disorders. *Journal of communication, 25*(4), 71–85.
- Miller, J. D., Lynam, D., & Leukefeld, C. (2003). Examining antisocial behavior through the lens of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Aggressive behavior, 29*(6), 497–514.
- Miller, J. D., Lynam, D., & Leukefeld, C. (2003). Examining antisocial behavior through the lens of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29*(6), 497–514.
- Mitchell, S. A. (1996).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learning environment and intrinsic motivation in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5*(3), 369–383.
- Moreno, J. A., Hellin, P., & Hellin, G. Cervello, & Sicilia, A.(2008). Assessment of motivation in Spanish physical education students: Applying achievement goals and self-determination theories. *The Open Education Journal, 1*, 15–22.
- Nicholls, J. G. (1989). *The competitive ethos and democratic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Ntoumanis, N. (2001). A self-determination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motivation in physical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2), 225–242.
- Ntoumanis, N., & Standage, M. (2009). Morality in spor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21*, 365–380.
- O’Conner, B.P., Vallerand, R.J. (1990) Religious motivation in the elderly. A French-Canadian replication and an extens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0*: 53–59
- Orlick, T. (1978). *Winning through cooperation: Competitive insanity, cooperative*

- alternatives. Washington, DC: Acropolis Press.
- Osofsky, M. J., Bandura, A., & Zimbardo, P. G. (2005). The role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cution process. *Law and Human Behavior, 29*(4), 371.
- Paciello, M., Fida, R., Tramontano, C., Lupinetti, C., & Caprara, G. V. (2008). Stability and change of moral disengagement and its impact on aggression and violence in late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9*(5), 1288–1309.
- Pelletier, L. G., Fortier, M. S., Tuson, K. M., Briere, N. M., & Blais, M. R. (1995). Toward a new measure of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motivation in sports: The Sport Motivation Scale(SM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7*, 35–53.
- Reeve, J. (2002). Self-determination theory applied to educational setting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183–203.
- Reis, H. T., Sheldon, K., Gable, S. L., Roscoe, J., & Ryan, R. (2000). Need satisfaction, social activity, and daily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419–435.
- Rutten, E. A., Deković, M., Stams, G. J. J., Schuengel, C., Hoeksma, J. B., & Biesta, G. J. (2008). On-and off-field antisocial and prosocial behavior in adolescent soccer players: A multileve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31*(3), 371–387.
-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 Ryan, R. M., &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pp. 3–33).
- Ryan, R. M., & Deci, E. L. (2007). Active human nature: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promotion and maintenance of sport, exercise, and health.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exercise and sport, 1*, 19.

- Sage, L., & Kavussanu, M. (2007). The effects of goal involvement on moral behavior in an experimentally manipulated competitive setting.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29*(2), 190–207.
- Sage, L., & Kavussanu, M., & Duda, J. L. (2006). Goal orientations and antisocial functioning in male association football players. *Journal of Sport Sciences, 24*, 455–466.
- Shields, D. L., & Bredemeier, B. L. (2007). Advances in sport morality research. *Handbook of Sport Psychology, Third Edition*, 662–684.
- Shields, D. L., & Bredemeier, B. L. (2011). Why sportsmanship programs fail, and what we can do about it.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82*(7), 24–29.
- Shields, D., LaVoi, N., Bredemeier, B., & Power, F. C. (2007). Predictors of poor sportsmanship in youth sports: Personal attitudes and social influence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29*, 747–762.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Standage, M., & Treasure, D. C. (2002). Relationship amo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and multidimensional situational motivation in physical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2*(1), 87–103.
- Standage, M., Sebire, S. J., & Loney, T. (2008). Does exercise motivation predict engagement in objectively assessed bouts of moderate–intensity exercise?: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0*(4), 337–352.
- Todd, D., & Hodge, K. (2001). Moral reasoning and achievement motivation in sport: A qualitative inquiry. *Journal of Sport Behavior, 23*, 307–327.

- Vallerand, R. J. (1997). Toward a hierarchical model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9*, pp. 271–360. Academic Press.
- Vallerand, R. J., Pelletier, L. G., Blais, M. R., Brière N. M., Senècal, C. & Vallières, E. F. (1992). The Academic Motivation Scale: A measure of internal, external and amotivation in educ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 1003–1017.
- Vallerand, R. J., Pelletier, L. G., Blais, M. R., Brière, N. M., Senècal, C., & Vallières, E. F. (1993). On the assessment of intrinsic, extrinsic, and amotivation in education: Evidence on the concurrent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Academic Motivation Sca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3*(1), 159–172.
- Walker, H. M., Severson, H. H., & Feil, E. G. (1995). Early screening project: User manual. Longmont, CO: Sopris West.
- Weinberg, R. & D. Gould(2003). Foundations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Human Kinetics.
- Williams, G. C., & Deci, E. L. (1996). Internalization of biopsychosocial values by medical students: a test of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767.
- Williams, G. C., Grow, V. M., Freedman, Z. R., Ryan, R. M., & Deci, E. L. (1996). Motivational predictors of weight loss and weight-loss mainten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15–126.
- Yukhymenko-Lescroart, M. A., Brown, M. E., & Paskus, T. S.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and abusive coaching behaviors and student-athlete well-being. *Sport, Exercise, and Performance Psychology, 4*(1), 36.

## 부록 1: 연구 1의 질문지

--	--	--

### 연구설명문 및 동의서

선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시어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귀하가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 하나 하나는 본 연구에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오니 다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기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문지에 쓰이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학문적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며,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으시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시면 네모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 본인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적절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합니다.
- 본인은 연구기간 중 언제라도 중도에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 연구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본인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서명 시 실명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2018년 1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김선욱

지도교수 양명환

e-mail: hiphop1515@naver.com / Tel. 010-2914-2372

### I.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1) 남 성      2) 여 성

2. 귀하의 학급은?

- 1) 고등학교      2) 대학교      3) 실업팀(일반)선수

3. 귀하의 총 운동경력은?

- 1) 3년 미만      2) 3년 이상 - 7년 미만      3) 7년 이상 - 11년 미만      4) 11년 이상

Ⅱ. 다음 문항은 스포츠 상황에서 자신의 성취목표 성향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 혼자만이 어떤 플레이나 기술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일등을 하거나 제일 잘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동료보다 더 잘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남들이 나 만큼 못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 혼자서 득점을 거의 다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애들은 실수를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땀 흘려 노력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8. 정말로 열심히 연습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9. 재미있는 무엇인가를 배울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무엇인가를 배우고 좀 더 많이 학습을 할 때가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많이 연습할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2. 배운 운동 기술을 제대로 했다고 여겨질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3. 최선을 다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 문항은 운동선수들이 현재 스포츠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께서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 표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운동하는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재미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도전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운동에 몰두하는 기쁨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운동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운동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운동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운동에 참여하면서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주위의 권유에 못 이겨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나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왜 참여하는지 목적의식을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이 운동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내가 왜 이 운동을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이 운동을 계속해야 할 일인지 내 자신에게 반문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도덕적 이탈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찾아 “✓” 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 지않 다			보 통 이 다			매우 그렇 다
1.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그 선수에게 내 존재를 보여주는 교육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승리를 위해서라면 경기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심판과의 말다툼은 상대방에게 방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상대를 약 올리는 것은 앞애다 대고 욕설을 퍼붓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스포츠맨답지 못한 전략사용에 대한 팀의 결정은 문제가 되지만, 팀의 어떠한 선수도 책임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부모에게 걱리를 받았다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코치가 상대를 다치도록 지시하였다면, 상대를 다치게 한 선수는 책임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선수들이 규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도록 지시받았다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상대에게 약 올리는 행동은 실제로 상대를 피해주는 것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선수들 간의 욕설은 실제로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상대에 대한 공격적 언어는 실제로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상대를 조롱하는 것은 실제로 상대를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어떤 선수는 동물과 같은 대우를 받을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상대방이 인간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나쁘게 대해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상대방의 행동이 동물과 같다면, 동물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상대방의 행동이 사람 같지 않다면, 인간적 대접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 귀하는 “지난해 각종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얼마나 자주하였습니까?”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이 행  
 동했던 수준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찾아 “✓” 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자주 하였다	매우 자주하였 다
1. 나는 팀 동료를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플레이를 한 동료를 축하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팀 동료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팀 동료에게 성장할 수 있는 피드백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팀 동료에게 막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팀 동료에게 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팀 동료와 말다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팀 동료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팀 동료의 잘못된 플레이를 보고 불만족한 표정을 짓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부상당한 상대선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상대선수가 다쳤을 때 심판에게 경기 중단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바닥에 쓰러진 상대선수를 일으켜 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상대선수에게 부상을 입히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상대선수를 자극시켜 상대를 짜증나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상대선수에게 의도적으로 파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고의적으로 상대선수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파울을 당하면 보복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고의적으로 경기 규칙을 어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육체적으로 상대선수를 위협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상대선수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 지금까지 바쁜 시간을 쪼개어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 2: 연구 2의 질문지

--	--	--

### 연구설명문 및 동의서

선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시어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귀하가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 하나 하나는 본 연구에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오니 다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기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문지에 쓰이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학문적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리며,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으시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시면 네모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 본인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적절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합니다.
- 본인은 연구기간 중 언제라도 중도에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 연구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본인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서명 시 설명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2018년 5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김선욱

지도교수 양명환

e-mail: hiphop1515@naver.com / Tel. 010-2914-2372

### I.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1) 남 성      2) 여 성

2. 귀하의 학급은?

- 1) 고등학교      2) 대학교      3) 실업팀(일반)선수

3. 귀하의 총 운동경력은?

- 1) 3년 미만      2) 3년 이상 - 7년 미만      3) 7년 이상 - 11년 미만      4) 11년 이상

II. 다음 문항은 스포츠 상황에서 자신의 성취목표 성향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나 혼자만이 어떤 플레이나 기술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일등을 하거나 제일 잘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동료보다 더 잘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남들이 나 만큼 못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 혼자서 득점을 거의 다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애들은 실수를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땀 흘려 노력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8. 정말로 열심히 연습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9. 재미있는 무엇인가를 배울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무엇인가를 배우고 좀 더 많이 학습을 할 때가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많이 연습할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2. 배운 운동 기술을 제대로 했다고 여겨질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3. 최선을 다 할 때 가장 잘했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 문항들은 귀하의 도덕적 이탈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찾아 “✓” 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 지않 다				보 통 이 다			매우 그렇 다
1.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그 선수에게 내 존재를 보여주는 교육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2. 승리를 위해서라면 경기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3. 심판과의 말다툼은 상대방에게 방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4. 상대를 약 올리는 것은 앞예대 대고 욕설을 퍼붓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5. 스포츠맨답지 못한 전략사용에 대한 팀의 결정은 문제가 되지만, 팀의 어떠한 선수도 책임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6. 부모에게 격려를 받았다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7. 코치가 상대를 다치도록 지시하였다면, 상대를 다치게 한 선수는 책임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8. 선수들이 규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도록 지시받았다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9. 상대에게 약 올리는 행동은 실제로 상대를 피해주는 것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10. 선수들 간의 욕설은 실제로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11. 상대에 대한 공격적 언어는 실제로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12. 상대를 조롱하는 것은 실제로 상대를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13. 어떤 선수는 동물과 같은 대우를 받을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14. 상대방이 인간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나쁘게 대해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15. 상대방의 행동이 동물과 같다면, 동물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16. 상대방의 행동이 사람 같지 않다면, 인간적 대접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IV. 다음 문항은 지도자에 대해 평소에 느끼는 점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찾아 “✓” 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코치님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생각을 코치님에게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코치님은 나에게 운동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코치님을 매우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코치님은 내 질문에 대해 잘 대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코치님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코치님은 나의 기분을 잘 다룬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코치님과 나는 잘 통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코치님은 내가 운동을 확실하게 하도록 다른 사람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코치님은 내가 훈련에 참가하지 않거나 게임을 잘 하지 못할 때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코치님은 내가 열심히 훈련을 할 때만 보상이나 칭찬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코치님은 내가 코치를 실망시켰을 때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코치님은 내가 잘하면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주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코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도록 위협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코치님은 나의 모든 생활 중에 운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강요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코치님은 운동 이외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간섭 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V. 귀하는 “지난해 각종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얼마나 자주하였습니까?”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이 행 동했던 수준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찾아 “✓” 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자주 하였다	매우 자주하였다
1. 나는 팀 동료를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플레이를 한 동료를 축하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팀 동료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팀 동료에게 성장할 수 있는 피드백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부상당한 상대선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상대선수가 다쳤을 때 심판에게 경기 중단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바닥에 쓰러진 상대선수를 일으켜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팀 동료에게 막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팀 동료에게 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팀 동료와 말다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팀 동료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팀 동료의 잘못된 플레이를 보고 불만족한 표정을 짓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상대선수에게 부상을 입히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상대선수를 자극시켜 상대를 짜증나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상대선수에게 의도적으로 파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고의적으로 상대선수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파울을 당하면 보복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고의적으로 경기 규칙을 어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육체적으로 상대선수를 위협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상대선수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 지금까지 바쁜 시간을 쪼개어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감사의 글

제주대학교에 학사로 입학하여 석사, 박사과정을 하는 동안 많은 학문적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 특기생으로 입학하여 선수생활 뿐만 아니라 학업을 병행하며 시합에서 느꼈던 심리적인 면과 신체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생리적인 면을 직접적으로 실험하며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시합에서 느꼈던 심리적인 측면을 보다 심도 있게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기 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글을 빌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사과정부터 박사과정까지 항상 옆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시고 훌륭한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질책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열과 성을 다해 지도해주신 양명환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교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질 높은 학위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심사 마지막까지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해주신 김덕진 교수님과 김미예 교수님, 서태범 교수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학사부터 박사과정까지 학문적 지식을 쌓을 수 있게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고 많은 격려와 큰 도움을 주신 류재청 교수님과 김영표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에서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오셔서 부족한 저의 논문을 세심하게 지도해주시고 심사 이후에도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신 인천대학교 성창훈 교수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특히 대학시절부터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형제처럼 지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연구실 옆자리에서 큰 힘이 되어준 오영택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스포츠통계학 연구실 선생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대학생활부터 실업팀까지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같이 병행하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청 태권도팀 고대휴 감독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논문은 가족들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저를 뒷바라지 해주시고 묵묵히 응원해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준 누나를 비롯한 모든 가족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결혼과 학업을 병행하는데 큰 도움과 응원을 해주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의 곁에서 믿어주고 응원하며 옆을 지켜준 평생 동반자인 별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김 선 옥 올림